

교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변화를 위한 만남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보고서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

2009. 11.02 ~04

필그림하우스 지구촌교회 영성수련원
www.pilgrimhouse.kr



CBS, 국민일보, 극동방송, 높은뜻교회연합, 목회사회학연구소
목회와신학, 바른교회이슈데일리, 생명목회실천협의회
크리스체너티투데이한국판, 한국교회통신단, 화명제자소

협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씨드스쿨
문화선교연구원, 열매나눔재단, 지구촌나눔운동
크리스찬라이프센터, 한반도평화연구원, 한국해비타트

파트너



후원



주최

교회신명회복네트워크
CHURCH REVIVAL NETWORK



주관



C O N T E N T S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보고서

발행일 _ 2009년 11월 20일
 발행인 _ 우창록
 편집인 _ 양세진
 편 집 _ 조제호, 최육준, 전선영, 권오재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trust@trusti.kr
 www.trusti.kr

*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표지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내지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일정표 04

컨퍼런스 보고서 개요 05

감사인사	06
참가자 정보	08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선언	09
필그림하우스 Maps	10
필그림하우스 평면도	11
컨퍼런스 스케치	12
못다 한 이야기들	14
참가자 평가(5점 척도)	16
참가자 평가(주관식)	18
생태적 간식을 소개합니다	21
언론보도1(국민일보)	22
언론보도2(경향신문)	24

컨퍼런스 녹취록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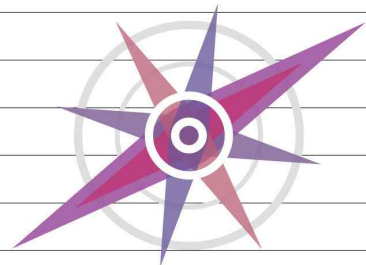
첫째날 - 개회예배 : 김동호 목사	26
강의 : 박원순 변호사	29
저녁집회 : 이동원 목사	33
둘째날 - 새벽예배 : 김동호 목사	36
강의1 : 김병연 교수	39
강의2 : 황형택 목사	42
저녁집회 : 이동원 목사	45
목회자 대담	47
셋째날 - 새벽예배 : 김동호 목사	50
특별 영화상영 : as we forgive	53
폐회예배 : 임성빈 교수	54
워크숍 1	
기독교환경운동연대	56
대한민국교육봉사단 Seed School	57
크리스천라이프센터	58
한반도평화연구원	59
워크숍 2	
문화선교연구원	60
열매나눔재단	61
지구촌나눔운동	62
한국해비타트	63

참고자료 6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66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사역	72
지역사회와 교회 워크시트	77
사회적책임 관련 도서목록	80
교회의 사회적책임 활동 사례목록	82

일정표

시간	11월 2일 (월)	11월 3일 (화)	11월 4일 (수)
6	2009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천국의 사고방식	3가지 시험
7		(설교: 김동호 목사)	(설교: 김동호 목사)
8		아침 식사	아침 식사
9		2009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10		(강사: 김병연 교수)	as we forgive 영화 상영
11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목회자의 영성과 리더십	폐회예배 : 사랑과 섬김
12		(강사: 황형택 목사)	(설교: 임성빈 교수)
13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	점심 식사 및 휴식	점심 식사
14	접수 및 방 배정	선택 워크숍 1	
15	인사말 : 이동원 목사 반석위에 세운 교회 (설교: 김동호 목사)	<input type="checkbox"/> 기독교환경운동연대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교육봉사단 <input type="checkbox"/> 크리스천라이프센터 <input type="checkbox"/> 한반도평화연구원	
16	오리엔테이션	선택 워크숍 2	
17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을 생각한다 (강사: 박원순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문화선교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열매나눔재단 <input type="checkbox"/> 지구촌나눔운동 <input type="checkbox"/> 한국해비타트	
18	환영 만찬	저녁식사 및 휴식	
19			
20	경배와 찬양 하나님 나라 일꾼의 영성의식 (설교: 이동원 목사)	경배와 찬양 (특별찬양 소울싱어즈) 하나님 나라 일꾼의 섬김원리 (설교: 이동원 목사)	
21	소그룹 나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목회자 대담"	
22	취침	취침	
23			



교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변화를 위한 만남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보
고
서
개
요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윤실입니다.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강사, 참가자 또 다양한 모양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적책임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린 것은 한국교회 최초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느낀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절망이 아닌 희망을, 어둠이 아닌 빛을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더욱 더 한국교회가 사회적책임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하셨던 목회자님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네트워크를 이루어 연대하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섬기고, 신뢰를 회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윤실도 한국교회의 신뢰회복과 사회적책임을 위해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목회자님들께서 기윤실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하겠습니다.

좋은 장소와 여러 가지 후원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섬겨주신 이동원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강의와 워크숍으로 섬겨주신 강사 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인 참여로 한국교회에 희망을 건져 올려주신 목회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윤실은 앞으로 계속될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가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책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사진 등 후속적인 조치는 이른 시일 안에 준비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건강하시고, 지속적인 교제와 연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11월5일

기윤실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김동호 이동원 이장규 임성빈 주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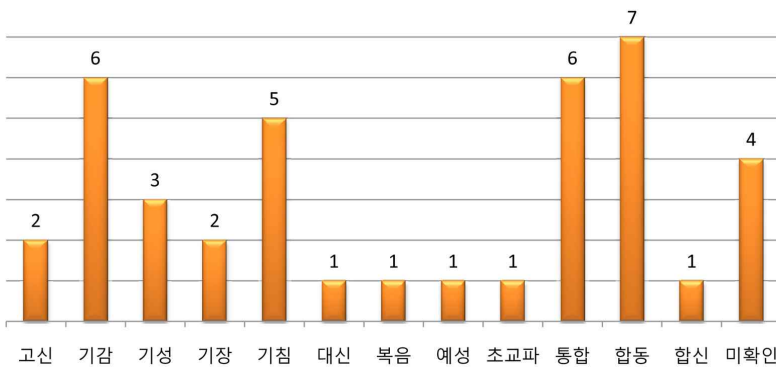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참가자 정보

● 참가자 명단(교회명순, 총 참가자는 40명-강사, 스태프 제외-이며, 이 중 4명은 정보가 파악되지 않음)

광주다일교회 김의신 목사(통합)	군포사랑의교회 조상민 목사, 최유정 사모(합동)
그분의교회 안준석 목사(기감)	꿈의교회 홍순석 목사(기감)
넘치는교회 이천우 목사(복음)	늘푸른교회 김근중 목사(기침)
덕생감리교회 고창용 목사(기감)	보성읍교회 최용준 목사(통합)
분당비전교회 곽한영 목사(합동)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합동)
삼덕교회 김윤배 목사(기성)	서울남교회 황영익 목사(고신)
서울제일교회 이경진 전도사(기침)	세우리교회 김만천 목사(기침)
송탄동성교회 김창운 목사(통합)	수정로침례교회 김기현 목사(기침)
신암교회 정규식 목사, 강민아 사모(통합)	안동제일교회 백종석 목사, 이경숙 사모(기감)
안산밀알선교단 박상수 목사(기침)	예수로교회 김명희 목사(합동)
예수로교회 김석진 목사(합동)	제천명락교회 이명선 목사(통합)
조촌교회 김기범 목사(기감)	좋은나무교회 이종아 목사(예성)
청주큰빛교회 이창호 전도사(기성)	평안밀알선교단 한덕진 목사(초교파)
하누리교회 김양호 목사(합신)	한국교회 강춘근 목사(기성)
한성장로교회 정해은 목사, 신영숙 사모(기장)	함께하는교회 임재민 목사(합동)
향상교회 이정숙 전도사(고신)	KL중앙교회 장원민 목사(대신)

● 교단별 참가자 현황



● 지역별 참가자 현황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선언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회자 일동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 하락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고백]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복음의 본질임을 고백한다.
2. [인식] 우리는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웃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한다.
3. [대안] 우리는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통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가능성과 대안을 보았다.
4. [실천] 우리는 지역 사회의 현실을 경청하고 필요를 질문하고 요청에 응답하여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

2009년11월4일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참여자 이동원, 김동호 외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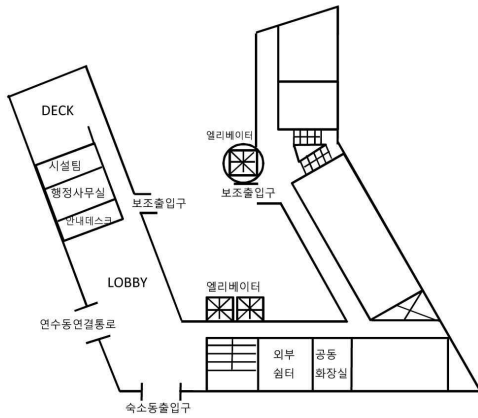
필그림하우스 Ma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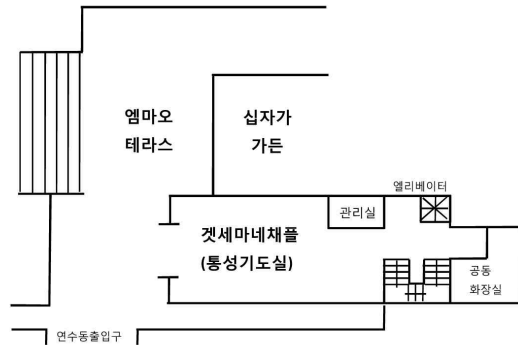
- 갈릴리동 1층과 예루살렘동 3층은 연결통로(비아 돌로로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모든 전체집회는 예루살렘동 3층 <카리타스채플>에서 진행됩니다.

필그림하우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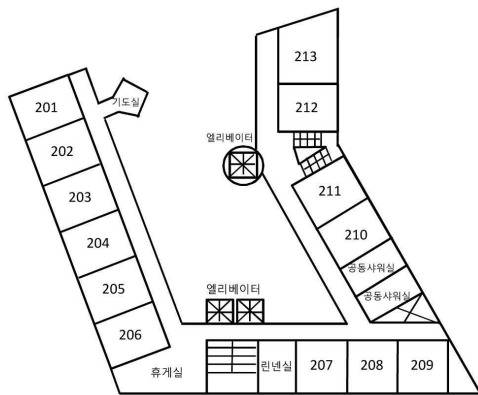
◎ 갈릴리동(숙소동)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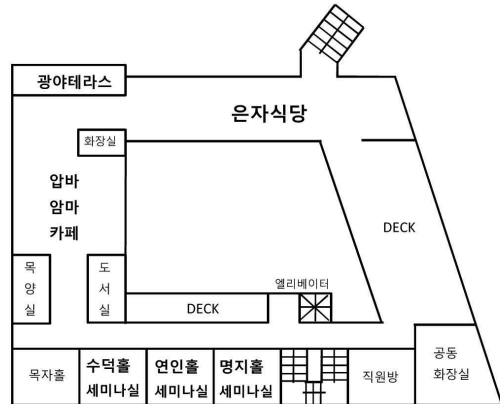
◎ 예루살렘동(연수동)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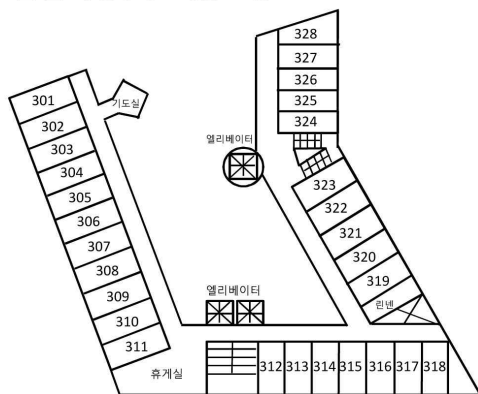
◎ 갈릴리동(숙소동)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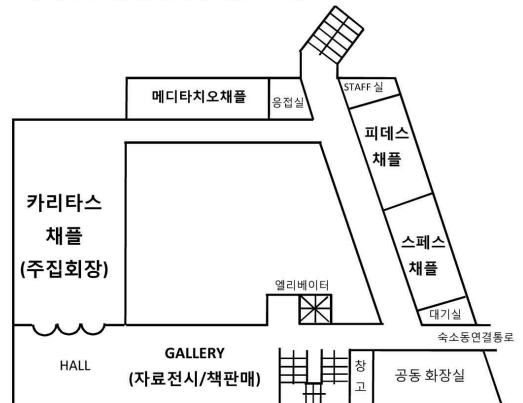
◎ 예루살렘동(연수동) 2층



◎ 갈릴리동(숙소동) 3층



◎ 예루살렘동(연수동) 3층



- ▶ 둘째날 오후 소그룹 워크숍은 예루살렘동 3층의 피데스채플과 스페스채플, 2층의 소그룹 세미나실(명지)에서 진행됩니다.
- ▶ 기도안내 : 예루살렘동 3층의 메디타치오채플과 갈릴리동 기도실에서는 침묵기도만 가능하며, 통성기도는 예루살렘동 1층의 갯세마네채플에서만 가능합니다.
- ▶ 문의/안내 :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카리타스채플에 담당자가 상주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갈릴리동 2층 205호로 문의바랍니다.

컨퍼런스 스케치

기윤실과 지구촌교회와 주최하고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가 경기도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지구촌교회 영성수려원)에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와 높은뜻 교회연합 김동호 목사를 주강사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의 신뢰회복과 사회적책임을 위한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50여명의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과 나눔, 이론적 강의와 뜨거운 기도가 함께한 균형 잡힌 행사로 한국교회의 희망을 발견하는 행사였다.



첫째날

개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김동호 목사(높은뜻 교회연합, 기윤실 공동대표)는 '반석위에 세운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사회적책임, 교회의 신뢰회복 이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안에 바로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바른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강사로 초청된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함을 역설했다. 수많은 아이디어로 한국 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하는 '소셜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 변호사는, 교회가 경직된 틀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수많은 가능성과 일감들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농촌을 탐방하면 느낀점들을 나누면서, 농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교회가 발굴하여 키운다면 한국 사회와 교회에 모두 덕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촌교회에서 마련한 환영만찬 이후 계속된 저녁집회에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기윤실 공동대표)는 마태복음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영성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자신보다 늦게 온 일꾼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일에 불평을 늘어놓은 일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은혜의 의식', '동역자 의식', '빛진자 의식' 대신 '홍정의식', '경재 의식', '공로의식'을 가진 것을 지적하며 한국교회가 사회를 섬길 때 바로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의 은혜안에서 일해야 함을 강조했다. 저녁집회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둘째날

새벽예배 설교자로 나선 김동호 목사는 첫째날 저녁집회의 이동원 목사와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다. 김동호 목사는 일꾼의 입장이 아닌, 포도원 주인의 입장을 풀어 설명하며 천국의 사고방식을 설교했다. 포도원 주인이 오로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을 상기하며, 바로 포도원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돈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월급주기 위해 사업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모델임을,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가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동호 목사의 개척, 열매 나눔 재단 등 보이지 않는 성전건축 설교에 참가자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어 오전에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기운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계속해서 저조한 상황이지만, 작년과 비교할 때 소폭의 신뢰도 상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병연 교수는 신뢰회복없는 선교도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받고, 소통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이원론적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고 영적 윤리적으로 갱생하며 개교회 상징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는 이어진 강의에서, 강북제일교회가 실천한 사회적 섬김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황목사는 사례를 나누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영성과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목회자들이 조금더 넓은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8개의 파트너단체와 함께 마련한 분야별 워크숍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신청해서 각 단체의 담당자로부터 사역을 소개받고, 개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 워크숍에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민국의교육봉사단, 크리스천라이프센터, 한반도평화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 열매나눔재단, 지구촌나눔운동, 한국해비타트등의 참여했다.

소울싱어즈의 특별찬양이후 이어진 저녁집회에서 이동원 목사는 교회가 사회적책임을 실천함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교회중심적인 사역에서 탈피해, 지역과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다가가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촌교회가 지역에 적극적으로 필요를 물음으로써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노인복지관련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도회와 함께 이루어진 참가자 전체 대화시간은 조성돈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의 진행으로 이동원, 김동호 목사와 기운실 공동대표인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를 패널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소교회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교회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모델들을 많이 제시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다.

셋째날

마지막 날 새벽, 김동호 목사는 세 가지 시험이라는 설교를 통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교회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아 사역해 나가자는 말씀을 전했다.

이후 내전으로 인해 고통을 겪던 르완다의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AS WE FORGIVE'를 함께 감상했으며, 폐회에 배를 마지막으로 컨퍼런스가 마무리됐다. 임성빈교수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설교를 통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동기에 더해, 지식과 총명을 갖춰 좋은 동기가 잘못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함을 설교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의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함 때문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갈 목회자들이 이런 점을 함께 기억하자고 역설했다.

컨퍼런스 스케치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는 딱딱한 이름과 달리 꽤 유쾌하고 즐거운 컨퍼런스였다.

이 분위기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싶어 에피소드 몇 개를 전하려고 한다.

부디 그 때의 그 분위기, 조금이라도 느껴 보시길 바라며~~^^

01.

2일 저녁집회(이동원 목사)와 3일 새벽예배(김동호 목사)의 본문이 똑같다?!

일명 마태복은 20장 사건! 컨퍼런스의 양대설교자 이동원목사님과 김동호목사님 빅매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실제 이동원목사님의 저녁집회 이후 숙소로 가시는 김동호 목사님 "나 내일 같은 본문인데 어떡하지?라고 하시며 부담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 아닌 기대를 넘어 경쟁의식이 아닌 파트너의식을 여실히 드러내신 강한 포스!

두 분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 그 하나로 완성도 있지만 그 두 말씀이 합하여 더욱 완전해짐을 확인하였다.

이것 자체가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심장한 기획이 아닐까~

(한국교회의 협력사역을 기대한다^^)

02.

박모 변호사..."컨퍼런스 이름이 왜 이리 정직하냐...이러니 사람들이 적게 오지."

희망제작소 후원할 사람이 많으니 오시라는 알리의 사탕발림에 넘어 와 먼길 오신 원순씨~

쓴약일수록 사탕발림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책임 다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런 제목을 뽑아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다~

(네~내년엔 좀 더 덜 정직하게 제목 뽑아보겠습니다^^)



03.

임모 대표..."50명 오면 많이 온다고 하지 않았나"
 50여명이 조금 덜 모인 컨퍼런스에 오셔서 사회적책임이라는 주제에 100명은 무리였다며
 자신의 선견지명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이는 기윤실 스텝 빼고 모든 강사진들의 일관된 주장!
 주눅든 실무진을 위로하려는 어른들의 배려의 맘과 '사회적책임'의 인기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04.

황 모 본부장..."모든 컨퍼런스 60~70%는 조직동원입니다."
 기윤실은 조직이 없다?! 조직동원력 제로! 이것이 기윤실의 현주소다.
 그렇다. 조직을 동원하려면 동원의 핵심권력이 필요하다. 강력한 이름 아래 상황 불구 모이는 건데
 기윤실 내부 조직원을 무서워하는 이들은 한국교회에...없었다! 이것이 기윤실의 진짜 저력이 아닐까~
 세를 과시하기 위한 조직동원~ 기윤실은 안한다! 못한다!!!

05.

김모 목사..."나는 물주 중에 물주, 조물주를 잡았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윤실의 목회자에 대한 이해불충분으로 월요일 첫날부터 짝센 일정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도 새벽기도 때 필받으신 김동호목사님의 간증 아닌 간증 시리즈~
 자신의 글 중에 가장 제목을 잘 뽑은 사례 "큰물주 vs 조물주" 이야기를 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만, 특히 목회자에게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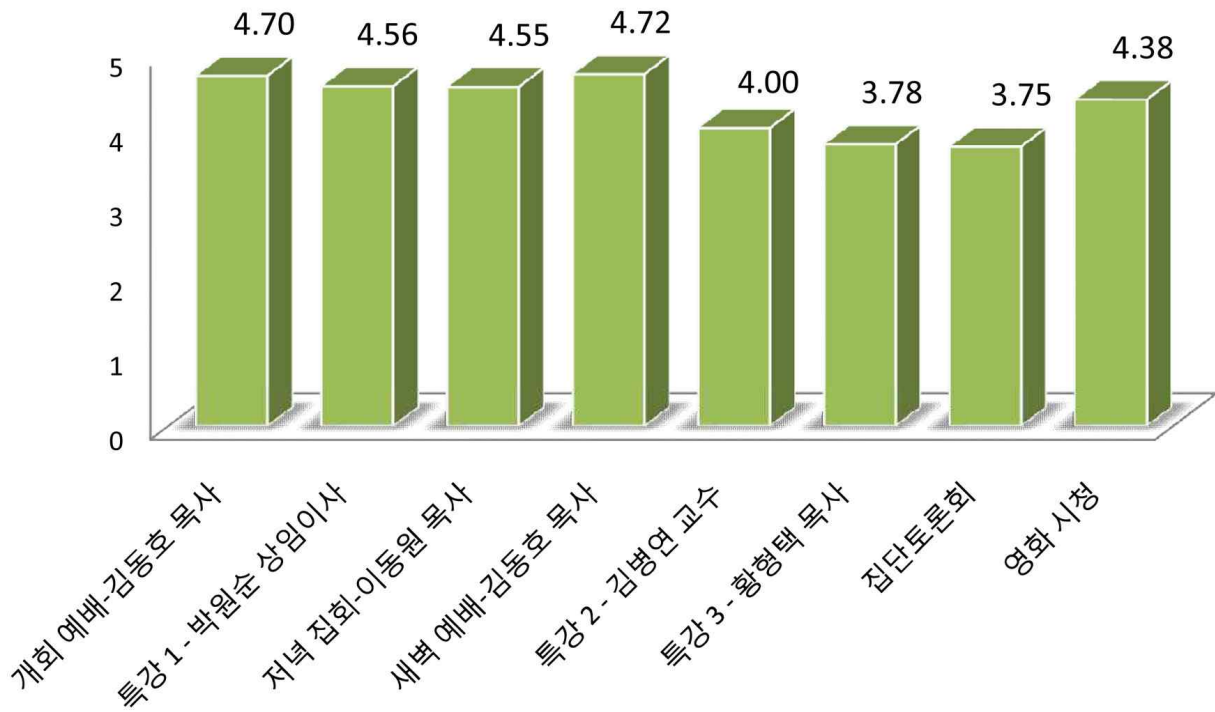
이모 목사..."나는 사회적 회심을 한 게 아니라 회춘한거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바쁘시다던 목사님 두 분께서 컨퍼런스 2박 3일 내내 티격태격 말씀을 주고 받으셨으니
 이동원 목사님, 김동호목사님의 간증 들으시고 한마디! "단무지 스타일~!"
 김동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 들으시고 "이목사님 이제 회심하셨네~"
 이에 질세라 "회심이 아니라 회춘!"이라고 화답~~~
 좌중을 즐겁게 해주셨다^^

참가자 평가(5점 척도)

(5점 척도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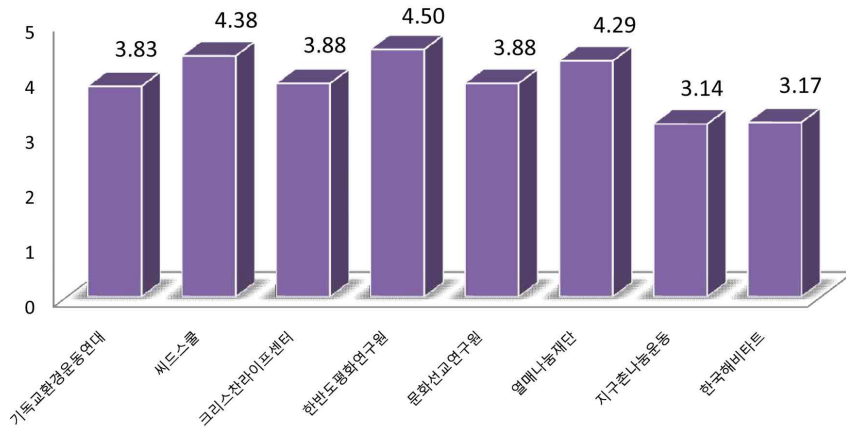
● 전체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균 점수	전체 평균
개회 예배-김동호 목사	4.70	4.30
특강 1-박원순 상임이사	4.56	
저녁 집회-이동원 목사	4.55	
새벽 예배-김동호 목사	4.72	
특강 2-김병연 교수	4.00	
특강 3-황형택 목사	3.78	
집단토론회	3.75	
영화 시청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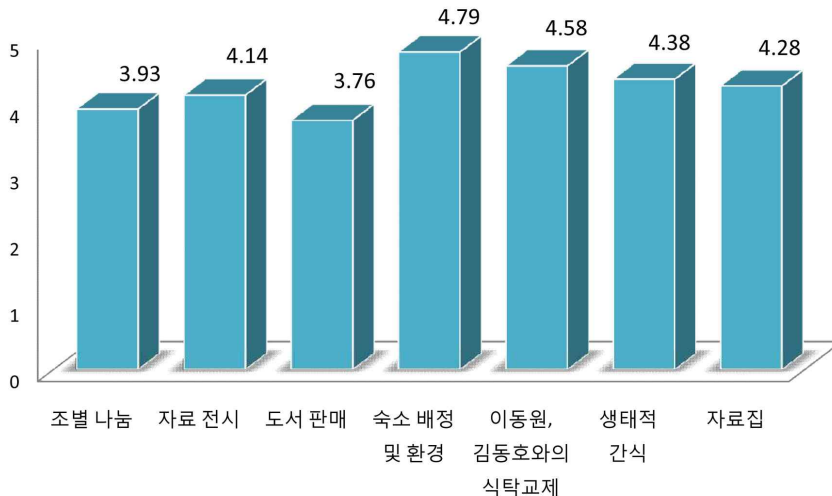
● 선택 워크숍 평가

프로그램	평균 점수	전체 평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3.83	3.88
씨드스쿨	4.38	
크리스찬라이프센터	3.88	
한반도평화연구원	4.50	
문화선교연구원	3.88	
열매나눔재단	4.29	
지구촌나눔운동	3.14	
한국해비타트	3.17	



● 기타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균 점수	전체 평균
조별 나눔	3.93	4.27
자료 전시	4.14	
도서 판매	3.76	
숙소 배정 및 환경	4.79	
이동원, 김동호와의 식탁교제	4.58	
생태적 간식	4.38	
자료집	4.28	



참가자 평가(주관식)

1.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향후 개선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_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신학적, 성서적 정의를 점검토록
- _ 대형 교회 스피커보다 작은 교회, 중형 교회 스피커 사례 공유
- _ 병렬식 나열이 아니라 선책과 집중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구성
- _ 전체 진행에 큰 흐름과 프로그램에 만족합니다만 설만한 시간이 오후에 있었으면 합니다. 개별적 교제의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 _ 영혼구원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적 감각유지
- _ 여자 목회자 사역 사례 발표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_ 참가한 목회자 대다수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데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 한국 사회를 세심히 둘러보기 전에 주변의 작고 힘없는 교회와 열심히 대형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서도 아무 대책 없이 개척할 수밖에 없는 부목사님들의 현실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_ 제 1회 컨퍼런스 이후 참가교회들의 변화를 추적하고 다음 기회에 나누며 격려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 _ 한국 교회 전체,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여 신뢰회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가동했으면
- _ 분야별 전문성과 정보 교류 / 교회와 전문 선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_ 선택 워크숍 시간을 좀 더 주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접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_ 100인 미만 교회, 500여명 규모의 교회 등 다양한 사례 발굴
- _ 케이스 스터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 _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20~30분 정도를 하였으면 좋겠다.
- _ 작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

2. 다음 컨퍼런스에 꼭 추가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_ 웃을 수 있는 시간 / 함께 움직이는 시간도 / 운동할 수 있는 시간
- _ 작은 교회 목사들이 지역사회 복지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전략
- _ 소셜 서비스, 소셜 액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 _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교회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 목회자를 초대해서 그 배경과 과정을 들었으면 한다.
- _ 차후 신학생(대학, 대학원)의 컨퍼런스가 있었으면 합니다. / 여성,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 / 자영업자들을 위한 윤리적 지원
- _ NGO를 통한 기독교적 사회참여와 함께 / 교회(대, 중, 소, 농어촌, 특수)의 교회적 사회 참여를 추가했으면 (선택 워크숍에서)
- _ 봉사, 구제 나아가되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역할 참여 고취하고 사례 제시
- _ 이동원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는 목회자 세미나 수준이다. 목회자 간담회를 좀 더 잘 기획하여 목사로서 점검할 기회가 있었으면
- _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기관, 교회의 박람회 (전시회) / “지역 리서치 방법” - 관 및 지역 시민 단체와의 접촉 방법 / 참가자가 자신의 현실에 맞게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제출하면 심사해서 사업 비용을 후원하는 프로그램
- _ 중, 소규모 도시 중 교회가 연합(기독교연합회 또는 연합 봉사회)이 효과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봉사사역을 실행하고 있는 사례 발표 또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_ 사회적 영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소그룹워크숍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추천단체가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_ 지역별, 계층별, 대상별 접근에 대한 논의가 차후에는 다루어졌으면
- _ 작은 교회 중형, 대형교회와의 연대
- _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실무자
- _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
- _ 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 끼친 내용
- _ 분야별 정치, 경제, 미디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량을
- _ 기독교 대안교육 협의회, 홈스쿨
- _ 공동체 교회, 사회선교 지향하는 개척교회
- _ 이혼자, 싱글 부모를 섬기는 사역의 노하우를 주제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 _ 지역 아동 센터
- _ 부스러기 나눔, 마이크로 크레딧, 사회적 기업의 사례발표, 연계 사업 아이디어 제공
- _ 소소하게 지역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단체, 예를 들어 도시락 나눔, 노인 목욕 봉사, 방과 후 아이들 지도 등 90% 이상의 작은 교회들이 실천하고 접할 수 있는 주제와 단체
- _ 두루두루 다 들어가거나 소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_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서울 미아동에 있다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
- _ 친환경 농산물 단체 (적거래나 도농관계)
- _ 관공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담당자

4. 기운실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돕기 위해 해야 할 역량을 무엇입니까?

- _ 전국 교회 사회적 책임 동기부여와 활동 요청 브로슈어 제공
- _ 교회의 네트워크, 전문가 지원
- _ 기독교 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 변론적 작업 (비판도 필요하지만 변호 단체 역할이 기독교에게 전설하다 느끼므로)
- _ 지역별로 기운실이 지역교회에 자료, 정보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 윤리실천?? 자료들을 교회 별로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 _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성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요청
- _ 가교 역할 /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윈윈의 가교, 실천사례 교회의 모범사례의 발굴과 시작하는 교회와의 가교
- _ 공선기위에서 설교집 자료 배포한 것처럼 사회 책임에 대한 성경적 글, 설교 제작 / 사회 현실적 이슈에 대한 성경적 논평, 가이드라인 제시
- _ social speaker의 산파역할
- _ 교회와 교회 다리 놓기 해주십시오. / 기존 교회 사회적 책임 활동 사례 발굴하여 나누고 공유하는 마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 _ 컨퍼런스 내용을 잘 정리하여 홍보하는 일이라 봅니다.
- _ 사회적 책임의 성서적 근거 홍보 / 사회적 책임의 성공 사례 자료 제공
- _ 지금처럼요. 사실 씨앗학교 같은 프로젝트 강의를 듣고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한국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프로그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개 교회와 손잡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_ 신학교 내에 신학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사회 복지 커리큘럼을 필수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세대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배우고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_ 잘못된 이미지 개선과 홍보 / 문제 지적을 넘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감당
- _ 지금의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갔으면 합니다. 교회의 신뢰 회복 운동에 매진하였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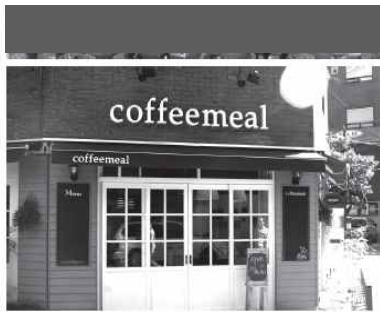
5.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느낌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_ 감격, 감동, 사역 방향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 책임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적 자존심 계속 회복하는 사역자가 되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목회와 교회가 되도록 결단합니다.
- _ 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으며 한국 교회의 시대적이고 역사적 사명감을 안고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돌아갑니다. 좋은 행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스태프 분들에게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 _ 좋은 출발이 반입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지수 향상이 금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희망의 빛을 보게 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관점을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_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했고 좋았습니다. 좋은 쉼과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_ 기습 뛰게 하는 충격과 도전을 준 재도약의 발판이 됨
- _ 식탁의 교체 시간은 참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편성되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 거점 교회로 지역에서의 영향이 지속되게 했으면 합니다. / 한국교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전국에 몇 교회? 목회자 수? 신학교(대학, 대학원) 수? 지역별 복음화율? 지역별 교회수? - 통계청과 지역자치정부에 알아보라고 하지 말고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_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진행의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참석자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이기에 더욱 감사
- _ 큰 그림을 보며 방향성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회적 참여, 책임을 해온 전통을 다큐로 제작하여서 오늘날도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줬으면 예를 들어 고아원 사역.
- _ 순수함이란 목사님의 말씀엔 동의하지만 솔직히 위화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부목사로 대형교회를 섬기며 도시에 있을 땐 몰랐는데 지방의 작은 교회로 담임 파송되고 보니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괴리감이 생깁니다. 미자립 개척교회보다는 감사한 조건이지만 지방에 와보니 수도권보다 훨씬 교세가 약하고 교회 사이즈가 작습니다. 펀드가 부족한건 아니지만 지방의 인구적은 도시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비교적 정밀한 조사와 통계로 인한 눈높이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은 대형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모두 느끼지만 좀 더 세심한 상황에 맞는 제안이 필요하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 _ 시각을 넓히는 장, 엘리야의 7000명을 만날 수 있었던 장
- _ 너무 교회 안으로 고정된 시선을 사회적 밖으로 넓히는 시선을 열어주는 계기가 됨 / 사회적 책임을 통한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느낌
- _ 교회가 이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당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목회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20~30대의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 _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의 쉼과 도전적 세미나는 앞으로의 사역에 큰 힘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이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형교회를 섬기시는 김동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기회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남편과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 _ 한마디로 한다면 참 좋았어요. 좋은 환경, 주변 경관, 숙소, 식사 등 좋았고요. 무엇보다 목사님들의 영적 메시지가 좋고, 여러 정보를 얻게 된 것도 좋았어요. 고생하셨고, 참여의 기회와 폭이 넓어졌으면
- _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리, 핵심을 발견, 도전받고 방향과 시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얻어갑니다.

생태적 간식을 잠깐 소개합니다!

● 기윤실의 윤리적 선택 ●

「커피밀」, **공정무역 커피**를 제공한다! (3일 낮 제공예정) - 디딤돌교회 윤선주 담임목사



동네주민의 사랑방 '커피밀'은 공정무역커피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사랑방의 역할로서 존재함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이들과도 소통하는 곳이기도 한다. 송파구에만 벌써 3호점이 생길만큼 동네에서 의미있는 역할로 자리잡고 있으며 작년 겨울에는 마을주민들과 일일찻집을 함께 열어 그 수익금을 함께 양로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커피밀에서 진행되는 '커피교실'은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평화, 사랑의 가치를 공유하는 7주과정의 프로그램으로 벌써 12기를 배출하였다.

'얼굴있는 거래'를 통해 경주시니어클럽(사회적기업) 찰보리빵을 만나다!

'얼굴있는 거래'는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구조를 바꾸고, 생산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는 책임지는 거래를 하려고 한다. 제3세계 빈곤국가에서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제품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계층이 만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수작업한 축구공, 멕시코의 커피, 장애인들이 함께 만드는 사회적 기업 워켄센터의 쿠키, 캄보디아에서 생산, 가공하는 노니 등을 만날 수 있다. 기윤실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대사리)'에서 얼굴있는 거래를 통해 간식을 공급받는다. 포용과 섬김을 터득해 가는 대사리, 얼굴있는 거래 덕분에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는 중이다.



애덕의집 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우리밀 쿠키



애덕의집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지체 및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과 생산 기술훈련, 서비스기술훈련을 통해 생산적 인력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가정복귀를 이루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울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여 생산공급하고 있다. 소울에서 만드는 쿠키류는 모두 100% 우리나라 통밀로 만들고 있으며 아울러 유정란, 국산최고급버터, 국산생우유, 친환경우렁콩산물을 사용하고 유화제 등의 인공첨가물을 배제하여 만든 건강식이다. 매월 1회씩 엄격한 품질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 생협에서 건져 올린 무농약 고구마, 굴
- 가평(지역농산물)에서 직접 공수한 곱질째 먹는 저농약 사과
- 이 밖에도 유기농커피믹스, 친환경현미녹차, 모과차, 등굴레차 등이 제공됩니다.

세상 향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물어라

[국민일보 이동원 목사 인터뷰 기사]

국민일보 2009.10.31일자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교회 사회적 책임 전파로 사역 후반기 여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세상 향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물어라”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고민한다. 사회와 더불어 사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CSR은 교회에도 시급한 문제다. 지난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시행한 조사를 보면 국민 18.4%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가 없으면 부흥도, 복음 전파도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기독교는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동원 지구촌교회 목사는 “교회와 세상간 소통의 부재가 문제”이라며 “단순히 이웃에 베푸는 차원을 넘어 교회가 사회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라”라고 조언했다. ‘이 시대 대표적 복음 설교가로 불리는 이 목사는 사역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사회 속 교회의 역할’ 문제에 부쩍 관심을 쏟고 있다. 기윤실 공동대표를 맡고 다음달 2일 개최되는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 주강사로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8일 지구촌교회 분당 성전에서 이 목사를 만났다.

기획

2009년 10월 31일 토요일 (제6419호)

국민 18.4%만이 기독교 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 향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물어라”

**교회 사회적 책임 전파로
사역 후반기 여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고민한다. 사회와 더불어 사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CSR은 교회에도 시급한 문제다. 지난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시행한 조사를 보면 국민 18.4%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가 없으면 부흥도, 복음 전파도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기독교는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가.



다음달 열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서 주강사로 나서는 이동원 목사는 “중 노릇을 하자”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중 노릇뿐 아니라 사람의 중 노릇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이 목사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외적으로 사회나 불신자들은 교회를 ‘그들만의 공동체’ ‘스스로만 잘해보려는 공동체’로 봅니다. ‘교회가 사회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내적으로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수가 언론에 종종 오르내리고, 이것이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신뢰도 추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뢰도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소통’과 ‘연합’을 꼽았다. 이 목사는 “사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지만 세상은 잘 모른다”며 “이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종교의 경우 힘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이미지로 활동하는 데 비해 기독교는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며 “개별교회 영웅주의를 버리고 한국교회가 ‘우리’라는 모습으로 함께 활동하는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등 선교 책임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사회 참여 사역에도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사명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웃 사랑의 관점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뭔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뭔지 등을 묻고 이를 함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사역을 많이 창출할 수 있지요”

이 목사는 지구촌교회의 활동 사례 몇 가지도 소개했다. 이 교회는 수지성전이 있는 용인시와 꾸준히 접촉하며 지역사회의 현안이 무엇인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한 끝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립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센터 규모나 운영 시간도 크게 늘렸고, 최근 용인시 노인보호센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때 역시 용인시, 성남시와 상의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 작업,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

그는 체계적 사회 참여를 위한 교계 싱크탱크 육성도 제안했다. “이 일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사역입니다. 나를 포함해 많은 목회자들이 4대강 사업이나 용산참사 등의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쉽게 판단을 못 내릴 때가 많습니다. 중간지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교회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를 지지하고 동참하면 한국사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목사는 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게 됐을까. 그는 “설교자이고 복음주의자로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여전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이만큼 성장한 한국교회가 책임과 역할을 못하면 우리의 진정성과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없다. 축복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듯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복음의 길을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번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서 목회자들에게 “중노릇을 하자”는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중노릇뿐 아니라 사람의 중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 사역 후반기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 기사는 해당 신문사의 허가를 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신뢰 약해진 교회 ‘사회를 섬기자’

개신교 최초 ‘사회적 책임’ 토론회

경향신문 2009-11-12 도재기 기자 jaekee@kyunghyang.com

성인 3명 중 1명은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회가 개선할 점으로는 교인·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일치, 타종교에 대한 관용 등이 꼽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바른교회아카데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8~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1%로 지난해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5%다. 신뢰하는 이유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가 21%로 가장 많으며,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지도자·교인들의 언행불일치(32.2%), 무분별한 선교(10.0%), 타종교 비방(9%), 기업화 현상(7.4%) 등이 지목됐다.

개신교회의 개선할 점으로는 교회지도자·교인들의 언행 일치(50.1%), 타종교 관용(20.5%), 재정 투명화(13.4%) 등이 꼽혔다. ‘호감을 갖는 종교’로는 가톨릭이 33.7%로 가장 많고, 개신교 28.0%, 불교 26.4% 순으로 나타났다. 기윤실 등은 이번 조사결과를 13일 공식 발표하며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개신교계에서는 최근 교회 성장세와 달리 신뢰도가 바닥을 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정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해선 사회적으로 신뢰 회복이 핵심 관건이며, 이를 위해선 교회들이 이기적 행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윤실과 지구촌교회·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등은 지난 2~4일 지구촌교회의 영성수련원인 경기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회가 열린 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다. 토론회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와 높은뜻교회연합 김동호 목사 등 목회자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신뢰 추락을 부른 개신교회의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방안들이 나왔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쇠퇴를 부르는 주된 원인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들이 소명을 가장해 야망을 가지고, 목사가 주인이 되며, 세상을 잊고 버렸더니 이제 세상이 교회를 버리고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사회를 섬기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이사는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등의 활동 경험을 전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피폐한 농촌을 살리는 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교수는 “신뢰 회복 없이는 선교도 힘들다”며 영적·윤리적으로 갱생해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복음의 본질’ ‘이웃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문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선언’도 발표했다.

양세진 기윤실 사무총장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는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향후 정기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 등을 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는 해당 신문사의 허가를 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교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변화를 위한 만남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녹
취
록



개회예배

사 회 : 양세진 사무총장(기윤실)
 기 도 : 김윤배 목사(삼덕교회)
 인사말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축 사 :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 사회 : 양세진 사무총장(기윤실)

한국교회 역사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컨퍼런스는 최초이다. 많이 부족하지만 해마다 할 예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새로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 인사말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필그림하우스 오픈이 1년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는데,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컨퍼런스는 처음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2박 3일동안 많이 쉬셨으면 좋겠다. 쉽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박 3일동안 좋은 쉼과 한국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일에 비전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환영한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



김동호 목사(높은뜻교회연합 대표)

장로회 신학대학교, 맥코믹 신학교 등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기윤실 공동대표, 열매나눔재단 대표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깨끗한 부자, 나는 정직한 자의 행동을 믿는다.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상 규장) 등이 있다.

본문(개역개정) / 마 16:13-20

-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큰 모임은 아니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이 일이 잘 뿌리내리면 좋겠다. 올해 1월 교회가 분립되면서 갑작스럽게 일선목회에 서 물러났는데, 날아갈 듯 좋다. 제 목회가 짜증나고 힘든 목회는 아니고 과분하고 감사한 목회였지만, 그래도 책임을 내려놓으니 편했다. 그래서 나에게도 짓눌리는 것이 있었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짓눌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니 생각이 다른 사람과 교회를 하는 것이었다.

목회를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잘 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는 깨끗한 양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깨끗한 양심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깨달음이 생겼다.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않으므로 욕심이 사라지고, 유무상통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있어서 죽은자들과 사는 카타콤에서 살고, 잡히면 사자밥도 되고 화형도 당하는 300년의 핍박속에서도 기독교가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가 신뢰를 잃고 추락을 시작했나 라고 생각할 때, 한국의 개신교회는 마치 성령받기 전의 제자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고 소명을 가장한 야망을 가진 교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 사람들에게 배척받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샘물교회의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났을 때 당황스러웠다. 우리 민족이 탈레반에게 잡히고 죽었다. 상식적이라면 탈레반을 응징하지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탈레반 욕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한국교회를 국민들이 말도 못 할 비난을 쏟아 부었다. 아무리 잘못해도 초상집에는 그러는 것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니, 한국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쓰는 글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데,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딱 세마디라고 한다. 모여라, 돈내라, 집짓자라고 한다. 왜 한국교회가 신뢰가 떨어졌나? 바로 한국교회가 너무 이기적이 되어서 그렇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쇠퇴를 가져오고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미준이라는 모임이 있다. 함께 하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있다. 신학생들 집회가 있을 때 말씀 하신게 있는데, 교회에 한 집사님이 결석을 하셔서 다른 권사님에게 살피줄 것을 요청했는데 후에 그 권사님께 “왜 목사님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라는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보니, 화가 났지만 말은 맞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좋아한다. 높은뜻송의교회 개척 첫 날 설교한 말씀이다. 제목도 반석위에 세운 교회였다. 교회를 시작했을 때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이 팍차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반석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것이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것이다. 내가 교회 세우면 망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좋은 터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고백만 있으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도 좋다. 높은뜻송의교회가 세워지고 수적인 부흥이 빨랐다. 3달 만에 천명이 되었다. 그때 자랑하고도 싶었지만, 겁이 나기도 했다. 장로님이 3~40명, 집사님이 거의 다 였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쟁쟁한 사람들이 와 있으니 겁이 났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무도 기독교를 주장하지 않도록 직분임명, 훈련, 새벽기도, 철야, 남녀 선교회도 안 만들고 주일 낮 예배만 했다. 그때 알았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중독자였다는 것을 알았다. 일을 안 시키니까 못 견뎌하더라. 인천에서 다니던 분이 구역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반사회 가시라고 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데 집중했다.


교회를 시작했을 때, 실력 있는 변호사 집사님이 나에게 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해줬다. 높은뜻송의교회가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자신을 위해서 있는 은행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은행이다. 한국에 넘치는 게 교회다. 교회하나 더 세운다고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하지 말고, 교회의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였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고, 교회만 알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잊고 버렸더니, 세상이 교회를 버리고 있다.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바른 신앙고백-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교회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주제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교회들이 목적에 충실할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좋아한다. 바른 신앙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른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천국의 열쇠는 자녀의 권세를 뜻한다.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을 바로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탈북자들이 일하는 공장을 세웠다. 사업할 줄 모르는 목사가 공장을 세우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그때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인가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야 하는 일이라 하다 망하면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똬다 어디 쓰려고 하나? 자기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설교 컨퍼런스 하면 사람이 많이 왔겠지만, 사실 교회가 부흥되는데 가장 빠른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것이다.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아닌 하나님과 사회를 섬기는 일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사람이 많이 안와서 실망할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올 거라면 한국교회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바른 목적으로 가지고 교회가 쓰임 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첫째날 강의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을 생각한다 21세기 한국사회, 희망을 향해 소라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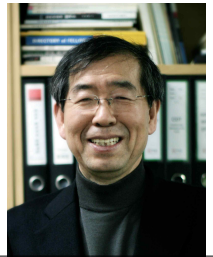
사회의 희망을 디자인하는 Social Designer.

변호사이며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를 주도적으로 창립하고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켜 시민사회의 역사를 써왔다.

현재 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나남출판), 희망을 심다(알마) 등이 있다.



한국교회가 근현대사에서 했던 역할은 너무나 대단했다. 구한말부터 심지어는 조선후기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부터해서 또 일제강점기,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국채보상운동, 언더우드가 세운 연세대학교... 우연히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본 적이 있다. 당시에 이 분이 말도 잘 안통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대학을 세우려고 했을때의 기도문이 감동적이었다.

저도 70년대 초에 학교에 들어가, 데모에 참여해 학교도 째리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 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교회가 이 민족사에서 했던 역할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권력에 핍박받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을 받아준 곳이 교회였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도 NCC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소개하면서 30만원을 주었다. 일종의 무료변론인데, 독일 등에서 기금을 모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교회가 아니면 그 시대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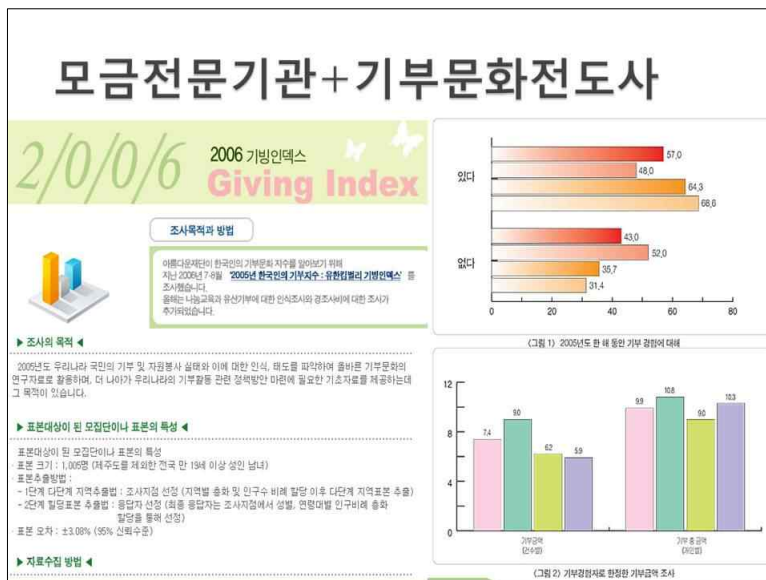
시대가 더 좋아졌는데, 더 힘든 시대가 된 측면도 있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서 아무리 중요한 주제도 다른 주제가 나오면 사라져버려서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힘들어지기도 한다. 자료들을 찾아보니 교회도 교회에 대한 반감, 대형교회 문제, 재정투명성 문제, 사학법 관련 문제, 정치교회 문제, 국보법 문제들 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기총에서 '국보법 때문에 불편한 자는 간첩들이다'라는 구호를 내 건 적이 있는데, 교회가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웠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제 직업은 소셜디자이너이다. 우리 사회를 잘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다. 교회도 선의로 힘을 모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만 함께 힘을 모으셔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소셜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소하지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전국백수연대 대표라는 직업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컨설팅하는 직업도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곳곳에 새로운 일자리가 널렸다는 것이다. 저는 정부에서 월급을 받지 않지만 한국사회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하는 공무원이고,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CEO이기도 하다. 목적은 비영리이되 과정은 기업이 되고 있다. 정부도 기업을 만드는 시대다.

외국에 회의를 나갔을 때 한 도시의 시장이 교회와 함께 피폐한 도시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본 미야기현 지사의 슬로건은 '슬림형 지방정부'다. 많은 일들을 민간이 하고 있다. 교도소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것이 최고다. 현재 우리나라 수형자의 절반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 왜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는가. 지금처럼 큰 정부는 필요가 없다. 교육부 없애야 하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없애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 사회가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와 교회가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1994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변론한 적 있다. 이후로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는 1994년도에 시작했다.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정치로 인해 기인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공정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참여연대가 인사청문회를 만들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다. 또 부패방지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부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도 그런 단체들이 많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재단들도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재단이 아름다운재단 외에 없다. 모금을 해서 세상의 공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전무하다. 미국에는 이런 재단이 700개, 영국은 200개, 독일은 100개에 이른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이다.



7년 정도 참여연대를 했는데,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아름다운 재단을 시작했는데, 존 새턴 이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부터 시작했다. 10만명이 참여하는 펀드에 300여개의 기금이 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동네에 돈이없어 캠프에 못가는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주는 기금도 있다. 미국은 사람이 죽으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그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빌게이츠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열심히 돈 벌고,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1% 기금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4만 5천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금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한국에 모금문화를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기부문화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다. 다양한 기금의 종류들이 있다. 노래방에서 90점 이하의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등 재미있게 모금을 하기도 한다. 온갖 방법들을 통해 모금을 하는 것이다. 모금이 재미있어야 한다. 네이버에도 해피빈이라는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금 아주 잘된다.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다. 많은 단체들이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면서 히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기업도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다샵이라는 영국기업은 전쟁반대, 동물실험금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



신뢰가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신뢰의 원천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재단은 간사들의 월급도 공개한다.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했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동네의 자랑이 되지만 사실 해보면 고민대행업이고, 올바른 법조인의 길은 영광이 아닌 고민의 길이다. 그래서 동네에 경축이 아닌 근조라고 붙여야한다고 강의했었다. 그랬더니 생각있는 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만들었다.

2002년에는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는 잘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잘 안된다고 하니 더 하고 싶어서 6명의 간사가 외국에 나가 조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현재 5000명 정도의 주부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공정무역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름다운커피가 약 1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스타벅스가 제3세계 커피농민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세 배를 지불한다. 우리의 목적은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를 돕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2006년에는 희망제작소를 설립했다. 21세기의 실학운동이다. 모든 국민들이 정책입안가가 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사회창안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올리는 아이디어 중 300개 정도가 이미 실현이 됐다. 인터넷 법원, 생리를 하는 여성을 위해 수영장 이용 불이익 개선 등의 일을 했다. 사실 이런 일에는 법률로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국회에 호민관클럽이라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적인 법률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의 아이디어는 영국 런던의 글로벌 아이디어 뱅크로부터 얻은 것이다.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어 존재한다.


이제 5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다. 제 친구들이 5년 전만해도 아침 모임에 얼마 모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는 바로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회가 이런 일들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당장보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길게 보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국민, 우리 사회는 매우 우수하고, 열정에 가득 차 있고 역동적이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회의 역동성 덕분이다.

현재 행복설계 아카데미는 10기를 배출했다. 모두 고위공무원, 기업의 임원으로 일했던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지자체의 명예시장, 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일하시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분들을 놀리고 있는 것은 사회적 재앙이다. 이런 분들을 잘 모셔서 이들의 재능을 잘 쓰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은 성인인구의 절반이 자원봉사를 하고 이는 800만명이 상시적으로 노동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기관은 전체 GDP의 7% 차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저는 한국에 실업자가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저는 블루오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농촌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점점 개인브랜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이 소시지 회사가 3000개다. 그래서 미국의 거대 기업이 들어와도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도 이렇게 가야한다. 그래서 한 농촌교회가 교회 옆에 공방을 만들어서 잼을 만들면 된다. 교회가 바로 농촌을 살리는 일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를 살리는 일이다.



교회가 단결하면 대한민국 농촌 하루 아침에 살릴 수 있다. 민박, 산어촌 유학 등 농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도 현재 그린투어리즘 등 농촌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기업 사장이 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고기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아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날 저녁집회

찬양인도 : 조재형 목사
사 회 : 황영익 목사(서울남교회)

하나님 나라 일꾼의 영성 의식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윌리엄 틴테일대학, 트리니티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등에서
성서신학, 선교학 등을 공부했으며 목회활동과 함께
기윤실 공동대표, 레노바레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두란노),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생명의 말씀사) 등이 있다.



본문(개역개정) / 마 20:1-16

-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샴을 주라 하니
-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 하였느냐
-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 일 것이다. 한국교회의 모습에 부끄러움으로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선 제 마음속에 행동도 문제이지만, 행동이 잘못되는 것은 깊은 곳의 의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0장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의미 있는 본문이라 생각한다. 예수님이 포도원품꾼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9장의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의 잘못된 의식을 교정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다. 의식이 잘못되면 행동을 고칠 수 없다. 교인들을 보면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손님처럼 행동한다.

또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깊은 영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들. 주님은 포도원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의 의식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그 배경은 19장 27절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예수님은 세상은 새로워지고, 나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때문에 희생한 것을 여러 배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19장의 말씀이 20장 마지막에도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던 베드로의 잘못된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주인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자기 자신을 향한 잘못된 의식이다.

포도원품꾼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잘못된 의식을 흥정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장의 베드로의 질문도 이런 흥정의식의 표현이다. 주님은 흥정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20장의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은총의 의식이다. 이 은혜의 의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흥정의식밖에 남지 않는다.

부름을 받기 전 품꾼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놀고 있는 자들이었다. 포도원품꾼과 마찬가지로 진노, 저주의 대상인 나를 불러주시고, 일꾼 되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포도원 일꾼들에게도 처음에는 일하는데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은혜의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정의식으로 변질됐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의식의 변질이 있다.

얼마 전 필립 안시가 한국을 방문해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분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통, 하나는 은혜였다. 필립 안시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 버리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울법밖에 없다. 오늘날 교회가 은혜가 있는 자리인가? 죄인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서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공립학교 기도운동하는 사람들 등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온다. 우리가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또한 예수님은 그 은혜를 특정한 집단에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은 물론 민중에게도 차별 없이 베푸셨다.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이 은총의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의식은 경쟁의식이다. 먼저 온 품꾼들이 나중 온 일꾼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에 항의한다. 바로 비교와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이 의식이 사람들을 불평자로 만들었다. 우리에게도 다른 교회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있다. 경쟁의식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그렇다면 경쟁의식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파트너의식, 동역자 의식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 경쟁의식이 많지 않았을 것.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우리사회가 경쟁사회로 변화되었다. 우리의식이 사라지고 경쟁의식이 되었다. 이 모습을 이규태씨는 장독대에 갇힌 게라고 표현한다. 한 마리의 게는 장독대를 빠져나올 능력이 있지만 서로가 다리를 잡아 다 같이 못나오는 ‘상사의 관계’인 것이다.

한국교회가 바로 경쟁의식을 버리고 동역자 의식을 가진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동역자 의식을 발휘했을 때 보람 있던 경험이 있다. 이민목회를 할 때인데, 이웃 교회가 더 많이 성장을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웃교회가 잘 성장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 기도하던 중 그 교회를 축복할 맘이 없는 나를 발견했을 때 비참했다. 그래서 제직회 때 기도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교회에 건축헌금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이웃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웃교회에 건축헌금을 했다. 그 목사님도 헌금을 내놓자 우시면서 함께 동역하지는 다짐을 했다. 그래서 코스타도 같이하고, 단기선교도 같이 하는 등 함께 동역했다. 우리가 동역자의식을 가지면 한국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박원순 변호사,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왔는데 잘 왔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이 모임도 연합의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각개 약진하지 말고 함께 연합하여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로 포도원 일꾼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로의식이다. 먼저 온 일꾼들은 나중 온 사람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공로의식이다. 이 공로의식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안에서 공로의식이 고개를 쳐 들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젊은 시절 교회에 나갈 때 대표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지막이 '공로 없는 이죄인...,'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라는 표현이 많았었다.

우리가 공로의식을 갖는 것은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장터에서 놀던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일하게 해 주시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우리가 공로의식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빚진자 의식이다. 사도바울에게도 이런 빚진자 의식이 있었다.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회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나 같은 목사들은 작은 교회들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 공로의식에 빠진다. 우리는 철저하게 빚진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나는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들 모임에 갔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세례를 받았다. 영혼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영혼구원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책임임을 서서히 알게 된다.

로잔언약은 보수주의 교회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다섯 번째 조항은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있다. 이 중 "우리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여온 것과 때때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상반된다고 잘못 생각해 온 것을 회개한다."는 부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바로 이 부분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한다. 1974년 로잔언약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그래서 1989년 15년 만에 로잔마닐라언약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우리가 빚진자로서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나는 내년 말로 담임목사직을 내려놓는다. 끝날때가 되니까 철이 든다. 최근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소통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해 온거다.

이제 세상에 가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으면 좋겠다. 지구촌교회도 용인의 필요를 묻고, 노인복지를 위해 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검토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가장 잘하는 단체가 됐다.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잘못된 의식 대신, 은혜의 의식, 동역자 의식, 빚진자 의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둘째날 새벽예배

사 회 :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

천국의 사고방식



김동호 목사
(높은뜻교회연합)

본문(개역개정) / 마 20:1-16

-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값을 주라 하니
-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 하였느냐
-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나는 일꾼이 아닌 포도원주인의 마음을 중심으로 말하고 싶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를 드신 것이 포도원주인이다.

본문의 포도원주인은 이른 아침이 지난 9시, 12시 오후3시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 일꾼들을 모아 일을 시킨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생각했는데, 한 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값을 주는 것을 보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 포도원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의 값을 주기위해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의 사업하는 집사님 한분이 헛장사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세금내고, 직원들 월급주니 남는 게 없다는 거였다. 그런데 남는 거 많다고 생각한다. 사업할 돈으로 은행에 돈 넣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세금내기 위해서, 직원들 월급주기 위해서 사업한다고 생각하라고 했다. 헛장사가 아니라 큰일 했다고 했다.

요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있는 개념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을 한 줄로 정의했다. 일반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감동적이었다. 이때 포도원주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포도원주인이 최초의 사회적기업가였다.

2001년 10월 7일 높은뜻송의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정관을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산의 최소 30%를 교회 밖을 돕는데 쓰자고 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남 퍼주다 망한 교회 몇 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장난 같지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한국교회 사는데 거름 노릇되지 않겠나 하는 장난 같은 생각한다.

30%에 해당하는 예산이 적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하던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 최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웃사랑회라는 모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다. 교회 주변의 동장들에게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상의해서 무의탁 노인들을 돕는 일을 했다.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다. 이런 일을 하는 와중에 높은뜻송의교회와 서울역 쪽방의 운명적 만남이 일어났다. 여기에 사는 분들이 드실 밑반찬을 해 날랐다.

이분들의 통장에 300만원이 있으면 국가가 700만원을 보조한다. 이 돈으로 전세를 얻어 매일 내는 방세를 아낄 수 있고, 돈을 갚으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50만원 모은 분들을 보조하겠다고 해서 쪽방탈출현금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가 큰 성과가 있어서 후에 밑천나눔 현금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자리해서 먹고 살 길을 여는 일을 했다. 근데, 이 일은 수혜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실패할 때 넘어지면 안 된다. 개별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분 12명을 묶어서 6000만원을 대출해서 김밥천국, 세차 사업으로 자활사업을 했다. 이 사업은 성공했다. 김밥천국은 4년만에 3억원을 벌었다. 이 일은 정부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이 일을 통해 각자 창업을 하게도 한다. 이동세차도 마찬가지로 성공했다. 노숙자이던 분이 사장이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벼락 맞는 충격이었다.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것의 힘을 보았다. 후에 청소용역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했다. 노숙자 자활을 돕는 일 이후 새터민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7000명의 새터민이 절망하면 재앙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몇 가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동안교회 시절 예배당을 건축할 때 재미있었다. 그래서 한번 더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성전건축 프로젝트로 열매나눔재단을 만들었다.

열매나눔재단에서는 빈민자활, 탈북자들을 돕는다. 새터민들이 일할 박스공장을 파주에 만들었다. 우리는 망할 짓은 다했다. 월급 124만원을 약속했다. 주5일제 근무했다. 사업하는 교회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처음에 적자가 많이 났다. 피가 말랐다. 그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라는 찬양을 간절히 불렀다. 나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히 잘 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을 저지르면서 애를 탈까 자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찬양 후렴이 참 좋았다.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올해 10개월 만에 첫 흑자를 냈다. 새터민들이 흑자를 낸 첫 번째 케이스였다. 정부에서도 기뻐해서 지원을 많이 했다. 그래서 공장을 또 만들었다. 지금 세 개의 공장인데 모두 흑자다. 노벨평화상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도 감동을 받고 갔다. 유누스가 “30명 먹여 살리는데 성공했다면, 3000만명 먹여 살리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감동적이었다. 현재 새터민들이 남한 노동자들보다 일 잘한다. 이 일을 성공하는데 비결이 있었다. 새터민을 끝까지 믿는 것 이었다.

마이크로크레딧도 했다. 은행이 대출 회수하는 것보다 회수율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가난한 자의 의리라는 생각을 했다. 믿어준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시험이 있었다. 예배드리던 학교가 강당을 비우라는 통보를 했다. 그때 그 돈으로 예배당 해결하지 않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주셨다. 교회를 분립했다. 교인이 줄어 들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분립하고 도리어 늘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정부의 지원을 계산하고 시작했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부돈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다. 탈북자들이 돈을 벌면 북한으로 보낸다. 정확하게 전달된다. 탈북자가 있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신귀족이 되었다.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1만 7천명 새터민을 살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한국교회가 1만 7천명 살리고 그래서 3천만명을 살리면 좋겠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설교도 잘하고, 구역관리도 잘 해야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신뢰를 얻을 때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둘째날 강의1

※ 본 원고는 11월 13일(금)에 진행된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자료집 내용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기윤실 홈페이지(www.trusti.kr)에서 여론조사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서울대 경제학과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경제학박사)에서 공부했으며, 영국 에섹스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미국 FRB(연방준비은행)에서 일한 한국인 교수님과 식사를 했는데, 이 분의 말씀이 앨런 그린스펀은 그들에게 영웅이었는데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그린스펀의 책임론이 일어났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 천하의 그린스펀도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이 조사를 통해서 사회의 작은 신호들에 민감하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지 않은 결과에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것은 희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의 취지는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 의 신뢰도를 개선하고,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한국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가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일자리와 성장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가 더 건강해지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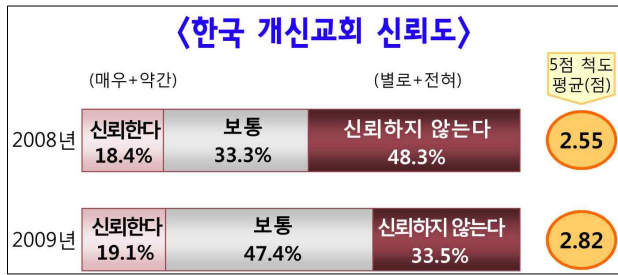
한국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 고용주와 노동조합 등이 믿지 못해서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교회가 나서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신뢰도 증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쇠이며 한국 사회를 섬기는 최고의 도구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2009년 9월 28일~29일까지 이루어진 조사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33.5%다. 보통이라고 한 사람들이 47%,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19.1%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신뢰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상승했다. 그러나 평균 이하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는 정부 지지율의 상승, 올해 기독교 관련 사건이 별로 없었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조사결과 불교신자, 무종교자, 20~30대에서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작년에 비해서 한국교회에 신뢰도가 상승했으나, 과거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추세에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즉, 올해의 신뢰도 상승은 하락 추세 속에서 유의미한 반등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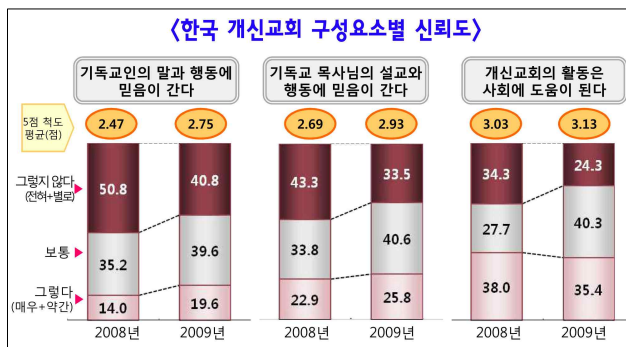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핵심적인 문제는 교인, 교회지도자등 사람의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독교인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 한국 교회의 신뢰도 : 5점 만점 2.82점, 19.1% 신뢰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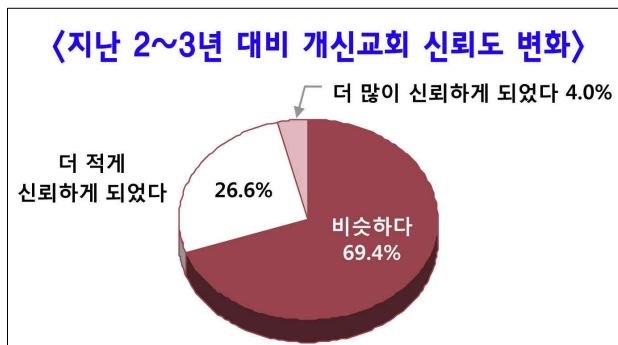
-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정도는 19.1%로 지난 조사 대비 0.7% 포인트 상승함.
- 작년 대비 20~30대 응답자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0.38점씩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2. 개신교회 구성요소별 신뢰도 : 교회활동(3.13점) > 목사(2.93점) > 교인(2.7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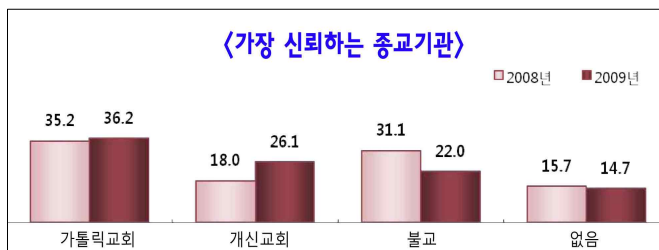
- 사람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핵심 이유

3.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 비슷하다(69.4%),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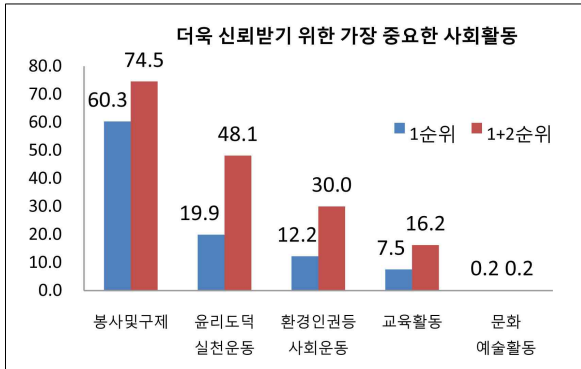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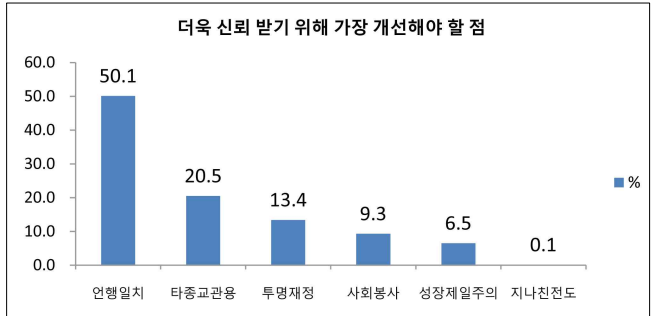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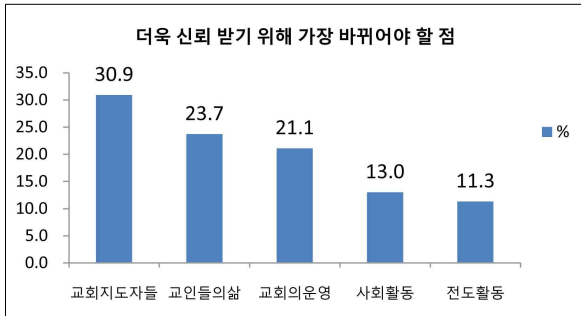
-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소폭 상승했으나,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응답 또한 무시 못할 수준으로 나타남.

4.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위 : 가톨릭교회(36.2%)>개신교회(26.1%)>불교(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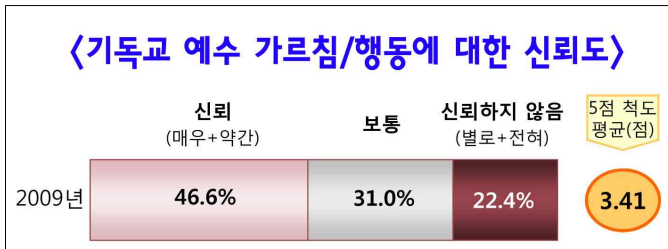


-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471명의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자는 10.8%

5.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교인과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봉사와 구제, 윤리와 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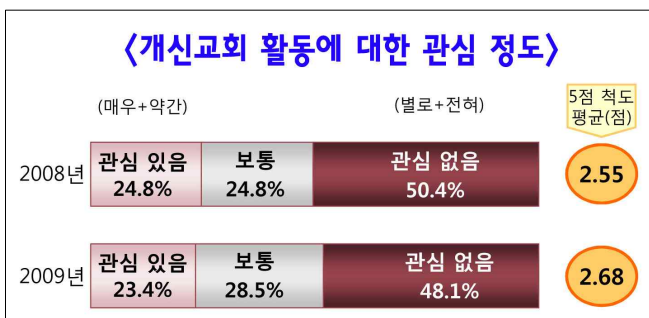


6. 예수님 신뢰도 : 5점 만점 3.41점, 46.6% 신뢰한다고 응답



- 기독교인의 신뢰도는 5점 만점에 4.56점이었고, 비기독교인의 신뢰도는 3.68점으로 나타남.

7. 신뢰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



- 교회의 낮은 신뢰도는 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소통의 부재 때문에 야기될 수 있다.
- 비기독교인들은 13.4%가 교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57.9%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

8. 신뢰지수를 결정짓는 요소


- 개신교인일수록,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신뢰할수록 개신교회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신교인의 여부가 5점 만점에 1.06점, 예수님에 대한 신뢰여부가 0.48점, 기독교에 관심이 있을 때 0.67점의 신뢰도 차이를 가져옴.

2009년 한국 교회의 사회신뢰도 여론조사결과는 작년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3년 전에 비해서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신뢰도의 상승은 "하락 추세 속에서의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등이 향후 추세적 전환으로 이어질지, 혹은 이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할지, 혹은 더욱 하락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추세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지수가 상승하려면 한국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삶,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삶과 행동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은 바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이원적 가치관, 즉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분리하는 가치관을 극복해야 한다. 오히려 말씀을 따르는 사회생활이 기독교인의 참된 증거임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삶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생활, 즉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을 열심히 신앙인 것처럼 교회가 가르치고 유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배움으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본분을 다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정치인, 기업가, 교사, 근로자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추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기독교인이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교회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봉사와 사회기여의 현황이 잘 소개된다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평가한 신뢰지수의 차이 중 약 60%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사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국 교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조사결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개별 교회가 교인들을 교회 활동에만 몰입시키고 그 결과 교인과 일반인, 교회와 사회가 분리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퇴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교회마저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를 섬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닫힌 교회가 아닌 열린 교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교회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하고 영향력 있으며 사회가 바라는 활동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퇴락한 여러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일반인들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대단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기독교 목사와 정,관,재계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며 그들에 의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반성과 각성 없이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는 점을 본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둘째날 강의2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목회자의 영성과 리더십

- 강북제일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뜨거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
역동적이고 젊은 목회자.
승실대 철학과를 거쳐 서강대와 장신대에서 신학을,
밴더빌트와 달라스 신학교에서 성서학을,
보스턴 대학원에서 설교학 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



본문(개역개정) / 눅 4:16-19

-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
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데 목회자의 역량, 비전,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어떤 책에 한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옆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고도 다시 던져버리는 것을 봤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손바닥 만한 물고기가 올라오니 어망에 담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집 그릇이 그것밖에 안되어서”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릇의 크기인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도 목회자의 내면의 그릇, 영혼의 그릇을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오늘 함께 목회자의 내면의 크기를 크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먼저 생각했다. 기획사에 맡겨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큰 수해가 났다. 그래서 한 번 행사를 위해 큰 돈을 들이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사도 교회에 중요하지만 그런 고민이 되어서, 도저히 이 행사를 못할 것 같다고, 그 돈으로 수해를 돕자는 설교를 했다. 그래서 돈을 보내고 함께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해서 더 큰 은혜가 있었다. 이후에도 단순히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체육대회 예산과 동일한 돈을 모금해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교회의 에너지를 느끼고 하나 되는 경험이 있었다.


중국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있었다. 그래서 한 주 헌금을 모두 지진 구호에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장로님들과 상의하지 못하고 발표를 하고 논의를 했다. 그래서 그 주의 헌금을 모두 중국에 보냈다. 그러면서 교인들도 교회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됐다.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도 교회에도 자부심과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내면의 그릇이 커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를 떼어주면서도 하나 됨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교회가 사회를 돕는 일을 겁내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일이 됐다.

사랑의 쌀 운동 등을 하면서 4년이 지났다. 4년이 지나면서 사회적책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교회가 너무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많은 선교사들을 조금씩 돕는 것보다 한 선교사를 온전하게 돕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에서도 선교 사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일을 했다.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전문가가 필요하게 됐다. 교회는 목회자를 뽑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전문인을 뽑는 것은 어색해 한다. 장애인, 입양, 탈북자들을 위한 일에 전문인들을 뽑아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해야할까?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회의 사회복지단체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출발은 바로 영성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영성은 무엇인가? 영성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것이다. 영성은 우리 내면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영성이다.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영성은 바로 삶을 사는 것이다.

교회가 너무 각개전투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각개전투에서의 실수가 전체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재직하는 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행사를 하고 너무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서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놀라운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섬기는 자세까지 내려가면 자연스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그것을 말리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가지의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각자가 속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다. 우리교회는 방학 중에 2~3달은 지역의 맞벌이가정, 불우가정의 어린이를 보살피는 학교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각 교회마다 주변상황을 살펴서 한 가지 일을 정하고 꾸준히 해나가면 교회의 존재이유를 부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날 저녁집회

특별찬양 : 소울 싱어즈
찬양인도 : 조재형 목사
사 회 : 이상화 목사(한목협 사무총장)

하나님 나라 일꾼의 섬김 의식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본문(개역개정) / 눅 15:25-32

- 25 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는 만아들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본문이다. 사실 이 본문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본문 앞의 세 이야기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다.

탕자의 이야기는 아들이 돌아옴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세가지 이야기 다음의 네 번째 이야기인 오늘 의 본문은 저에게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도록 해준 본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의 세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기독교의 결론일 수도 있다.

만아들이 풍악소리를 듣고 종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었다. 이에 만아들은 노하여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만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며 불평한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순종했어야 할 두가지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명령은 만약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동생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사명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왜 만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아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돌아온 동생을 환영할 수 없었던, 돌아온 죄인들을 받아들이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따로 기도하면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 자신들은 의롭고 다르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동생을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명령이다. 우리는 이 전도의 명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전도의 명령을 망각했을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교회들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전도의 명령을 향해서만 달려오다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이 전도의 명령은 계속 놓쳐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일수록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의 명령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러해 전 빌리 그레함이 집회를 하면서 목회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영적인 위기였을 때가 언제였는지 질문했다.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할 때라고 대답했다.

월로우크릭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스스로의 자성도 있지만 월로우크릭과 빌 하이벨스가 우리에게 준 영적인 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만아들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책임은 동생과 잘 지내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동생을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 때문인데, 바리새인들의 사랑의 실패는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식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흥미 있는 것은 만아들이 동생에 대해 사용한 호칭인데, 만아들은 탕자에게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아버지의 아들로는 인식했지만, 내 동생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를 자신의 동생,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불신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보니, 우리의 차이가 별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확장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의 친구의 딸이 팔과 다리라 떨어진 인형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인형”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도 우리가 아니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직면한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박원순 변호사, 김동호 목사님 같은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나 질문을 하면 많은 실마리가 풀린다.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 이웃과 지역에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민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항상 교인들에게 묻고, 회의과정을 통해 좋은 의견들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젊은 부부들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교회가 했으면 좋을지 물었다. 그랬더니 대안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연구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딪힌 중요한 문제는 대안학교가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그 문제로 이 일을 중단했는데, 이 때 대안학교 대신에 나온 아이디어가 홈스쿨링에 대한 의견이었다. 그래서 대안학교 연구팀을 홈스쿨링 연구팀으로 바꾸어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교인들의 필요와 의견들을 반영한 보람 있는 사례다.

지역사회와 교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전도와 이웃사랑의 책임을 다한다면 한국교회가 분명히 회복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100명도 안 되는 미국의 세이버어 교회가 어떻게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내가 세이버어교회에 가서 목격한 것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다. 이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수요일에 예배를 하고 성찬식을 해서 참여했는데, 한 정신이상자가 예배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여기서 35년을 봉사하신 분이 정신이상자의 팔을 붙잡고, “나를 좀 도와주겠습니까”라고 말을 하고 성찬 떡을 돌리는데 동참시키는 모습이였다.

이렇게 남은 생애를,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둘째날 목회자대담

사 회 :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교회를 생각한다

- 사 회 :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 대담자 : 김동호 목사(높은뜻교회연합),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조성돈 교수(이하 조성돈) - 유학에서 돌아와 교수가 될 때 한국교회 개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한국교회가 개혁되면 한국사회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이 생각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학자들과의 모임과는 달리 목사님들이 실제적이 이야기를 하셔서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먼저 김동호 목사님 말씀 듣겠다.

김동호 목사(이하 김동호) - 이 주제로 컨퍼런스가 된다는게 기쁘다. 상당한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음번 컨퍼런스가 더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셔서 쓸만할 때 쓰임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동원 목사님이 회심하셔서 좋다.(이동원 - 회심이 아니라 회춘했다.)

임성빈 교수(이하 임성빈) - 이 컨퍼런스 잘 안 될 거라고 했다. 양세진 사무총장이 이 컨퍼런스 개최에 흥분했는데, 잘 될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모인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징조라고 생각한다. 절망속 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다.

조성돈 -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시간 갖겠다.

강춘근 목사(한국교회) - 이동원 목사께 질문하겠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소셜액션과 소셜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셜서비스에는 이견이 없지만 소셜액션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소셜액션을 하면 교회성장이 안 된다는 피터와그너의 주장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고민이 된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이동원 목사(이하 이동원) - 원론적으로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도 소셜액션에 관심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는 쉽지 않다. 나도 피터 와그너에게 목사님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피터 와그너가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급진적인 운동은 아직 모르겠으나 직장들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CEO를 바꾸는 직장운동을 한다고 했다. 얼마전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면서 나도 4대강, 용산문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모아서 제시해주면 뭐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임성민 -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독일교회에서는 사회백서가 나온다. 사회정책에 대한 교회의 백서다. 미국에서도 교단별로 사회백서들이 나온다. 문제가 뭐냐면 교회백서가 아무리 나와도 지역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교단별로 정책문서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개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스탠리하우어위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 분이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인의 사회윤리는 다르지 않더라는 말을 했다. 매우 지당한 말씀이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소셜액션에 있어서 일관된 잣대와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교회의 상황 등에 따라 실천적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율법주의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학자들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쌍용차 사태가 일어나면 학자들은 이러저러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지만 그 지역의 목사님은 이해관계가 있는 교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할 뿐이다. 라인홀드 니버도 기독교 윤리의 마지막은 기도라고 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모르고 짓는 죄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이 나빠지면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진다. 바로 모르고 짓는 죄가 적어 지도록 법도 바꾸고 구조도 개선하는 것이 전문가의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황영의 목사(서울남교회) - 김동호 목사께 질문하겠다. 오늘 새벽 말씀 중에 목사님의 사역과 삶의 패턴을 느꼈다.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벼랑 끝에 몰아가서 던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던질 때의 목사님의 심리를 알고 싶다. 또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알고 싶다.

김동호 - 동안교회 그만둘 때, 교회 분립할 때 모두 인간적으로 볼 때 즉흥적으로 일어났다. 동안교회 그만두었던 중요한 계기가 경희대 노천극장에 3만명이 모였던 청년집회였다. 그 날 예수 이름으로 3만명 청년 모이는 나라가 어디있나 생각했다. 동안교회에서 이대로 잘 지낼 수도 있었지만, 한번 튀고 싶었다. 남은 여생 청년들 전도집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개척 생각이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상의했더니 좋다고 필쩍 뛰었다. 나보고 훌륭하다고 해주었다. 이렇게 즉흥적인 일이었는데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높은뜻송의교회 분립도 사도행전 목상 중에 전격적 결정이었다. 그리고 보니, 내가 하나님 맹신인 것 같다.

예배당을 내어놓아야 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바로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다시 기도했다.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부인과 배짱이 맞고, 교인들과 배짱이 맞았다.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 신났다. (이동원 - 이런걸 단무지라고 한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다)

이렇게 최악의 경우들이 내가 바라는 것이어서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다. 안식년동안 배운 것이 이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노는 법을 배웠다.

이명선 목사(제천명락교회) - 중소도시 목회하는 목사다. 사회적 책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큰 교회들 목회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작은 교회목사님들은 이제 돌아가서 적용을 해야한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을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궁금하다.

이동원 - 저나 김동호 목사님은 좋은 강사도, 모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 기대는 다음 모임에는 작은교회, 지방교회들 중에서 사회적 책임의 모델들을 발굴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김석진 목사(예수로교회) - 통일 사역에 관심이 많다. 김동호 목사님이 새터민 사역에 많은 일들을 하셔서 감사하다. 현재 우리나라 쌀이 많이 남는데, 북에는 보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장로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쌀 막걸리 부흥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가 호화로운데서 세미나 하는데 북의 동포가 굶어죽고 있다. 그런데 쌀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김동호 - 제가 대통령이면 다 보낼 것이다. 평양과기대에 가서 김순권 박사를 만났다. 올해 북한의 옥수수 작황이 작년의 절반이라고 한다. 이유가 우리나라가 비료를 안보내 줘서라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 찬동자였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지만 이 대통령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고분고분해졌기 때문이다. 정치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치에 기법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쌀을 보내주기는 해야 하는데, 북한이 받는데만 익숙해지면 형편없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도 새

터민에게 무조건 주지 않고, 교육과 과정을 통과해야 지원한다. 아무리 이명박 이명박해도 정치는 우리보다 낫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누가 정치를 하든 뽑아줬으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동원 - 얼마 전 복음적, 중도적인 목사님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움직이려고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대통령이 마음을 넓히고 비료, 쌀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조금씩 열고 있는 것 같다.

김동호 - 이명박 대통령도 생각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조성돈 - 남북문제는 또 임성빈 교수님이 전문가 아니신가?


임성빈 -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다. 핵 개발하는데 5억불이 드는데, 식량난 해결에는 3억불이 든다고 한다. 교회에서는 단순하게 굶는 동포 돕는다는데 합의할 수 있지만, 정치는 더욱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같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안준석 목사(그분의교회) - 청년들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 위에서 시작되는 변화보다 밑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더 빠르다는 경험을 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데도 교회의 지도자들만 모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청년들은 많은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컨퍼런스들이 종교적인 부분에 머물러 이원론적 세계관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청년들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김동호 목사님 의견 듣고 싶다.

김동호 -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필요하겠다^^

이동원 - 담임목사, 사회적책임 담당자, 청년들이 함께 모이면 좋겠다.

임성빈 - 기윤실의 실무능력을 고려해볼 때, 굉장히 엠비셔스한... 아주 좋은 이상적인 이야기다. 전략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모임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의미를 생각해본다. 이 기획을 할 때,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 시민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분들에게 그런 자원이 있다면 사회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어색해 한다. 그래서 교회와 시민사회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연대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조성돈 - 많은 도전과 희망이 있는 시간인 것 같다. 두 분 목사님을 통해 이론이 아닌 가슴 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여기모인 40여 분들을 통해, 40여 지역에 기적의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날 새벽예배

사 회 :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

3가지 시험



김동호 목사
(높은뜻교회연합)

본문(개역개정) / 마 4:1-11

-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 6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희망과 의욕이 샘솟는 것을 느낀다. 이제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저항이 있다. 사탄의 방해는 불편하여 힘들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도리어 사탄이 시험하지 않는 삶이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삶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본문은 세 복음서에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올려놓으신 뜻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풀리는 뜻이다. 이 설교의 다른 제목은 사탄의 출제경향이다. 이 본문의 시험은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풀 수 없는 출중한 문제들이다.

첫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다. 내 수준에서는 40일만 굶나면서 굶어 죽이는 시험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는다. 사탄은 살리는 척하면서 죽는다. 사탄이 이 시험에서 노리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뒤집는 것이다. 사탄은 먼저 먹고 나중에 하나님 일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 순서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일을 먼저 잡으면 지엽적인 일은 따라온다. 그러나 지엽을 먼저 잡으면 근본을 잡을 수 없다. 공자의 말에 군자는 먼저 의를 생각하지만, 소인배는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 마음에 든다. 자기이익 먼저 챙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지구촌교회, 강북제일교회, 높은뜻승의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예가 좋지 못했다. 너무 큰 교회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의 규모와 돈이 다가 아니다. 목사님들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일의 순서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교회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꿔 보자는 거다. 모두가 밥은 굶어도 세상먼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헌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십일조 헌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금이 안되면 어떻게 헌신을 하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십일조는 어렵다. 아무리 가난해도 십일조 먼저 떼고 살면 산다. 영국에서 집회할 때 십일조 헌금 했는데, 한 엄마가 십일조내면 애기 밥을 못 먹이는데 십일조를 해야 한다는 질문을 했다. 나는 성경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는 십일조 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죽자, 길 바닥으로 나왔으면 나왔자. 그래도 새터민 먼저주자. 이런 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 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는 평생 하나님 일 할 수 없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야 한다. 순서가 중요하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다. 사탄의 시험은 모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하나님이 뛰어내렸으면 사탄이 망하는 길인데 그러지 않으셨다. 교회 개척했을 때 내 연봉 문제로 게시판에 글이 올라 죽을 고생을 했다. 수가 낮은 사탄은 매장을 하려고 하지만 수가 높은 사탄은 사람을 뜨게 하고 올려준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을 사탄이 못 본다는 것이다. 스타가 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영광을 받는 것, 스타가 되는 것은 해프닝이지 아무 힘이 없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고 천사가 발을 붙드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일 때문에 쓸데 있는 일을 잘 못한다. 사탄은 처음에는 막는다.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탄이 바로 성장하는 목사로 밀어버린다. 그래서 착각하고, 들뜨고, 영광 받게 한다. 그것이 위험하다. 어느 기자가 나에게 제일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고 해서 은퇴라고 대답했다.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은퇴할 때 은퇴생각하면 최악이라고 했다. 비행기를 타도 착륙 전부터 안내방송이 나온다. 바로 착륙 전에 방송이 나오면 착륙이 아니라 추락이다. 나도 미리 은퇴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이 나에게서 바로 착륙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성경 읽으면서 모세를 드보산에서 죽으라고 한 게 이해가 잘 안됐다.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정도였다. 하나님 치사하다, 하나님한테 충성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틀렸다. 그게 모세에 대한 최고의 상이었다.

오늘 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나, 그 이유는 개신교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성장 속에 패망인자가 있다는 말이 있다. 한국교회 성장의 원인은 모세 같은 목사, 장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공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분들이 다 똥싸고 뭉개고 있으니 교회가 추락하는 것이다.

목사라는 직업은 사회학자들은 연예인이라고 분류한다. 나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목사들에게는 스타 기질이 있다.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잘 생긴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다. 목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것이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는 것이다. 나는 무너독남 외아들로 자라서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 집 앞의 과일집 개를 보고 싶어서 그 과일집에 매일 심방 간다. 개는 훈련시키면 주인이 주는 것만 먹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개는 주인이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평생 가려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 누가 주는 것인지를 묻지 않고 얼마인지를 묻는다.


문선명 돈을 받아서 여행한 목회자들 문제가 있을 때, 수습위원이었던 임택진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문선명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변명 때문이었다. 그렇게 큰 돈을 누가 주는지도 묻지 않고 받은 것이 알고 받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얼마인지만 묻고, 누가 주는 것인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동안교회 그만둘 때 나는 무엇인가를 봐서 결정한거지만, 교인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서운하고, 상처받은 교인들이 있었다. 그분들을 잘 못 챙겼다. 그랬더니 게시판에 김동호가 물주를 잡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100억이 300억이 됐다. 그래서 글을 올렸다. '큰 물주와 조물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것이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이다. 큰 교회 목사 되면 큰 물주들이 따라 붙는다. 부자들의 습성이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차별 때문이다. 그런데 목사가 부자들을 후원자로 생각하고 말리면 큰일 난다. 그 부자의 노예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지, 아무 돈이나 덩석덩석 받으면 안 된다.

나도 부자 돈 받고, 잘 쓴다. 그런데 그 부자들은 대부분 돌아선다. 명품을 안주기 때문이다. 절대로 이런 것에 속아서 붙잡으면 안 된다. 가장 큰 물주는 조물주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자.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아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달력에 말씀을 적어놓고 그것을 읽어야 식사를 하게 했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막내가 담배모양 껌을 가지고 와서 장난을 쳐서 혼내주려고 하니까 둘째가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다고 외웠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목사들은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다. 배달하기 전에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 삶에도 나뉠의 원칙이 있다. 모든 일이 급작스럽고, 미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결정 전에는 내 설교가 있다. 목회자들의 특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동역자들 되시기 바란다. 

특별 영화상영

as we forgive



Dir 로라 워터스 힌슨 Laura Waters Hinson | 미국 | 다큐멘터리
2008 | 53min | Color | Asian Premier

폐회예배

사 회 :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축 도 : 이명선 목사(제천명락교회)

사랑과 섬김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 미국 프린스턴신학교(Ph.D)에서
기독교윤리학을 공부했으며,
문화선교연구원 원장과 기윤실 공동대표로 있다.

본문(개역개정) / 빌 1:9-11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몇 년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독교 윤리학회가 열렸다. 주제는 원주민 문제였다. 그런데 발표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다. 캐나다 교회가 파산직전에 몰렸다. 원주민들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빼어간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 캐나다 교회가 원주민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언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한 보상소송이었다. 이로 인해 교회가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정부에 이야기를 했다. 정부를 대신해서 교회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모른척 했다. 결국 교회는 패소했고 지금 뒷 감당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 당시에는 교회가 좋은 의도에서 했던 일인데 결국 지금은 선교의 길이 막혔다. 기독교는 제국주의 종교로 인식되고, 기독교를 믿는 원주민은 반민족적이고 의식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캐나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교회들로 인해 지역사회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리지 못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랑만 가지고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고 충분히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

군목을 하던 시절 부대에서 한 병사가 수류탄을 던지고 동료들을 확인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부대에 믿음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대 구성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당시에 군목들도 사이 좋게 연대해서 일했다. 그래서 사단장이 군목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 사단장이 군목들이 사이 좋게 지내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조금 부끄러웠다. 그리고 부대와 병사들을 위해 헌신해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사단장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유가 있으셔서 훌륭했다. 지휘비법을 물었더니, 중간지휘자인 대대장들을 똑똑하고 부지런, 똑똑하고 게으름, 미련하고 부지런, 미련하고 게으른 네 부류로 나눠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을 많이 야단친다고 했다. 미련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골칫덩어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빌립보서 1장 9절이 생각났다. 우리가 다 사랑으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지혜로 더 자라가지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부지런한 분들이다. 세상에서는 학벌로 똑똑한 것을 말하지만, 신앙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분별하는 지식, 총명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총명함은 분별력이다. 분별력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신앙을 보여주려는 애를 써서 율법의 울무에 걸리는 일이 많다. 세상은 신앙을 보지 않고 삶을 보기 때문에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화이며 그래서 신앙과 삶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고 깊은 영성과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둘째날 소그룹 워크숍1



한국교회의 환경선교

※ 워크숍 강의는 별도 녹취록이 없습니다. 대신 자
세한 강의안이 자료집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운
실 홈페이지(www.trusti.kr)에 있는 컨퍼런스 자료
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양재성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가. 들어가며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밖에 없
는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
구 종말은 곧바로 인류의 위기입니다.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

21세기는 생태시대라고 합니다. 생태계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느냐가 21세기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는 근본 가르침이 연기론으로 생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교회공동체의 행동이 요청됩니다. 선교를 생
태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길을 환경선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환경의 역습

- 환경파괴로 인하여 하루에 150~200종의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 지난 25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가 30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 생물 다양성이 가장 왕성한 열대우림이 거의 다 파괴되었고 현재 7%정도만 남았습니다.
- 거대한 숲이 방목과 농장건설로 대부분 사라지고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곡창지대와 저지대가 침수하고 있습니다.
-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등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아내려 식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태풍은 날이 갈수록 강해져 강력한 살생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 먹거리 오염, 쓰레기 등 전 방위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은 하
나 밖에 없는 지구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둘째날 소그룹 워크숍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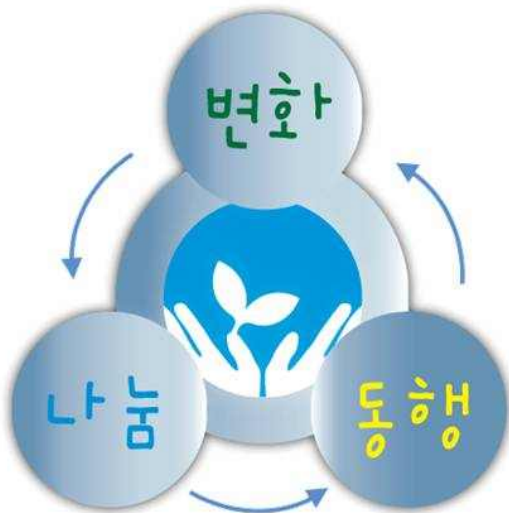


대한민국교육봉사단 Seed School



양세진 사무총장
(기운실)

Seed School 의 핵심가치



'나'를 나눔으로 '너'를 채운다.

학생, 교사, 가정, 학교, 교회, 기업, 정부가 각자 가진 시간, 물질, 재능, 마음을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룬다.

'나'와 '너'가 동행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전인적 동행을 이룬다.

'나'를 통해 '너'가 변화한다.

나눔과 동행을 통한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봉사운동을 확산시킨다.



둘째날 소그룹 워크숍1



크리스천라이프센터

교회와 지역사회 복지



신산철 목사
(크리스천라이프센터
사무총장)

사회복지프로그램 유형분석

순번	프로그램명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특수사역	계
1	사회교육원/문화센터 (한글학교, 영어, 뮤지컬, 문화강좌/주부대학 등)	9(6.3%)	2(1.4%)	-	-	11(7.6%)
2	노인대학	5(3.5%)	8(5.6%)	4(2.8%)	-	17(11.8%)
3	재가노인복지/ 노인요양사업(그룹홈포함)	1(0.7%)	3(2.1%)	3(2.1%)	1(0.7%)	8(5.6%)

둘째날 소그룹 워크숍1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의 책임



윤환철 사무국장
(한반도평화연구원)

1. 교회의 역할

한국교회는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에 관한 바른 지식과 영성을 기르고,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절실하다. 과거의 남북관계 진전도 이러한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졌으나 매우 소수의 인원들인데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부침이 심한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 전문성의 발현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회는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이 다수가 되도록 하는 제도(institution)의 하나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이 시민들에게는 특이한 역할이 필요하다. '과도기적 모순을 이겨내는 동시대인'이라고 명명해 본다. 서해 교전과 금강산관광이 동시에 일어났고, 탈북 난민이 북한국적의 축구선수 안영학의 경기를 관람하게 됐다. 우리는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공산화의 공포에 떠는 남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면서 북측과 대화하고 사업해야 한다. 이 현실을 부정하고 북한과 대결 혹은 친화 한 가지만 택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치우침의 극복이 필수적이다. 공중기도에 나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 누군가를 파괴해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 믿음보다 이데올로기가 앞선 상태는 위태롭다. 싸웠던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화해의 시대를 열 수 없다. 가장 최근에 피해를 당한 탈북난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정서적인 준비와 올바른 남북관계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은 비파괴적인 방법으로도 악을 몰아낼 능력이 있다. 우리는 '차선'이 아닌 '최선'을 구할 자녀들이다.

둘째날 소그룹 워크숍2



사회적 책임의 실천으로서의 문화선교



백광훈 목사
(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11년간의 문화선교연구원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문화선교(Cultural Communication)란?

문화선교란 문화의 모든 영역을 복음적 정신과 실천으로써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내장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려는 선교적 실천이다.

문화선교의 흐름은?

문화선교가 지닌 의미의 중의성: 문화의 도구성과 변혁성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

그동안 문화선교는 일차적으로 문화를 선교의 도구로 인식하는 차원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의 문화선교의 방향은 문화의 도구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문화변혁적 차원을 지향하는 보다 통전적 의미의 문화선교관이 요청됨. 즉 사회적 책임의 실천으로서의 문화선교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

Culture Making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둘째날 소그룹 워크숍2



2차적 사회복지 함께하기 새로운 나눔의 시작



김범석 목사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2차적 사회복지 대안으로의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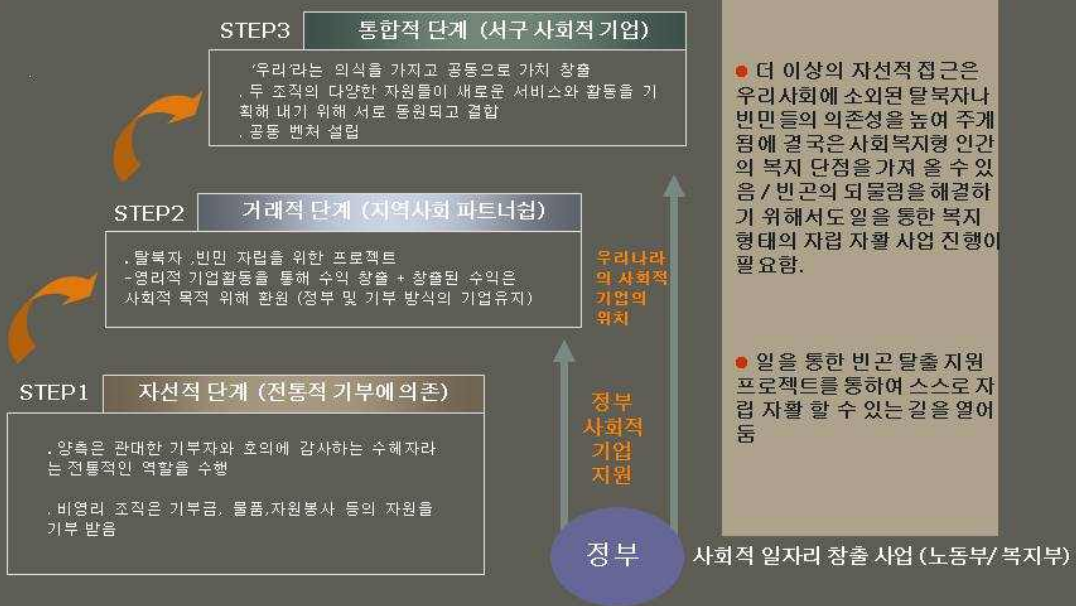
사회적 기업이란 ?

사회적 기업은 시장 지향성과 함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원칙을 가지며 출발한다.

사회적 기업의 목표 / '이윤 창출' + '사회적 의무 달성'

=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온전한 사회 구성원 회복

단계별 유형을 통해 본 사회적 기업의 위치



둘째날 소그룹 워크숍2



글로벌 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찾기 Thinking Points



김혜경 사무총장
(지구촌나눔운동)

시민사회 - 옹호활동



- 과국 정부 및 국제기구, NGO들의 원조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 정부나 NGO에 대한 자문, 감시 및 로비활동을 통해서 개발정책과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
- 빈곤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권, 민족분쟁, 외교정책, 인종차별, 이민, 이주노동자, 남북무역, 무기수출, 환경, 다문화, 소비자운동 등 남북관계가 조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
- 개도국의 구조 조정, 부채문제, 국제 통상, 인프라 구축,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원조공여국의 책임을 지적하며, 일부 NGO들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이 생산과 소비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 1985 세계개발운동(WDM) 2만명이 영국에서 ODA 증액을 위해 시위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ODA Watch (2006): 한국의 ODA의 양적, 질적 향상을 촉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

둘째날 소그룹 워크숍2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 해비타트 종합안내서



권이영 상임고문
(한국해비타트)

한국해비타트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1976년 미국 조지아주 코이노니아 공동체 농장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단체로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집을 짓거나 고치면서 참여자 모두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이루자는 운동이다. 해비타트의 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 (A World where everyone has a decent place to live.)이며, 단순한 집짓기를 넘어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동네와 지역, 국가 및 국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이 사명이다.

해비타트 운동에는 세 종류의 파트너들이 있다. 집의 주인이 되는 '홈파트너', 건축 자금과 물자를 후원하는 개인, 기업, 교회 등 '후원파트너', 건축 또는 사무실 업무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파트너'가 있다. 이들 각종 파트너들이 해비타트를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모두의 삶이 변화한다. 그러기에 해비타트 운동에서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수혜가정("홈파트너")도 건축작업에 참여("땀의 분담")하고 건축 실비를 형편에 맞게 장기/무이자로 상환하여 떳떳한 집주인이 됨과 동시에, 그 상환금으로 또 다른 가정의 집을 짓는 사랑의 품앗이와 사랑의 순환에 참여하는 동참자(파트너)가 된다.

현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비타트는 2008년말 현재 30여만 가정의, 150여만 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지구상에서 12분마다 한 가정이 해비타트의 도움으로 집다운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해비타트는 1995년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약칭 "한국해비타트")가 설립되어 국가분부와 지역별 지회 및 지부가 있으며 2008년말 현재 1000여 세대의 집을 짓거나 고쳤으며, 교회, 학교, 기업은 물론 <아버지학교> 등의 단체와도 결연하여 가정을 근본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2008년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아산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해비타트의 해외 사업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매년 1000여명 의 단기 자원봉사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 지구촌프로그램(Global Village Program)과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도 협력하여 필리핀, 몽골,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마다가스카르 등 여러 나라에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파견하여 집짓기와 집고치기 사업을 하여오고 있다.(추가정보:www.habitat.or.kr 및 www.habitat.org)

교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변화를 위한 만남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참
고
자
료



※ 본 참고자료는 컨퍼런스 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1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양용희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

* 본 글은 기윤실 주최로 2008년 10월 6일, 장신대에서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입니다.

1. 들어가는 글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표준화 작업으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과 UN Global Compact 그리고 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ISO 26000) 등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의 확산은 그동안 기업들이 각자 보고해 온 환경, 윤리, 사회공헌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기업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업과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NGO의 비판과 감시가 증가하고 시민들 역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업은 생산, 판매, 고용, 납세 등 기업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환경, 인권, 지역사회 등 기업 경영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다원화 사회에서 기업은 종업원, 고객, 협력사, NGO,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긴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사회적책임의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수십년 사이에 기업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면서 한국사회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그만큼 한국기업들의 환경, 인권, 윤리,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책임도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교회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커졌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도 기업과 같이 사회적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배경

20세기 후반 동서 이데올로기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화의 확산으로 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와 시장의 지배력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NGO들의 비판과 감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조직, 기업, 기업인들의

힘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¹⁾ 한편 시장의 확대와 기업의 확장가운데 발생하는 환경, 노동, 인권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NGO의 비판과 감시 또한 증가하고 있다. Corporate Watch의 경우 기업의 생태학적 사회적 파괴에 대한 감시와 고발의 역할을 위해 탄생된 대표적인 NGO 가운데 하나이다.²⁾ 미국인들조차 기업이 그들의 생활전반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기업의 막강한 힘과 사용은 NGO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힘과 영향력은 곧 바로 기업의 책임성과 연계된다. 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 노동, 인권 등의 모든 행위에서 윤리와 책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으며 생산과 고용, 세금 납부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강조는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외부의 압력으로 생각했다. 기업인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납세를 하는 것이 사회공헌이라 생각하였다. 기업 본래의 목적은 고용, 생산, 이윤 추구에 충실하는 것인데 기업이 사회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감소되고 결국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 상실로 기업은 실패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그러나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면 기업의 경제활동 역시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기업의 경영을 위협하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할 주요한 경영 지표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환경, 노동, 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외면하게 되면 결국 사회전체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성과를 가져준다는 긍정론적 시각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제 기업인들 스스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걸림돌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경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Price water house coopers가 1161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불과 25%만이 중요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CEO들은 60%로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이윤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한 CEO들이 68%로 조사되어 CEO들에게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경영에 매우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제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성과가 중요하며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로 해석하여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공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향상하고 기업가치와 올라가 주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이행은 단순한 이타주의적 시각이 아닌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년 사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회사 내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관련 부서가 조직되고 GRI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UN의 글로벌컴팩에 가입하는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국제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점차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다.

1) Edwin M. Epstein은 기업의 힘과 사용에 대하여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업 조직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카기업연합회(Corporate America)와 같은 조직에 의한 거시적 차원(macro level)의 힘이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가격인상, 시장 조정, 소비자 지배와 같은 매개차원(intermediate level)의 힘이다. 세 번째는 Microsoft, Wal-Mart, Procter &Gamble, Nike와 같은 개별 기업에 의한 미시적 차원(micro level)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Ted Turner, Michael Eisner(Disney), Bill Gates(Microsoft)와 같은 기업인에 의한 개별적 차원(individual level)의 힘의 사용이다. 그리고 이들 힘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개별적, 기술적, 환경적, 정치적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Archie B. Carroll, Ann K. Buchholtz. 2003).

2) <http://www.corporatewatch.org>

3) Business Week, Sept 11, (2000)

4) Pricewaterhousecoopers, 5th Annual Global CEO Survey, (2002)

3.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윤리, 지역사회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기업의 업종, 규모에 따라 매우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법과 제도, 사회의 전통,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개념은 학자, 국제조직, 기업들마다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개념의 정의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기업이나 학계에서도 아직 공통된 정의가 없이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⁵⁾ 'CSR'이라는 표현은 장소, 기업,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다.⁶⁾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 윤리, 인권, 지배구조, 사회공헌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폭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으나 "CSR"을 "기업사회공헌"으로 번역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Carroll(2003)교수가 잘 정립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경제적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법적책임(legal responsibility), 윤리적책임(ethical responsibility), 자선적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자선적행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경제적책임과 법적책임, 윤리적책임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으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자선적책임은 기대되는 책임으로 자발성이 강조되고 있다.⁷⁾

CSR에 대한 주요 정의

Michael Hopkins	CSR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다.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란 사회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자세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책임의 광의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사람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일이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e of Age 중에서)
WBSC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 CSR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지역사회와 사회전체와 함께 근로자들과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World Bank	CSR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크기는 사회전체를 위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
UN	CSR은 기업경영의 주관심사와는 별도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업들이 이행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기업의 행동들이 기업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시민과 사회의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며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BLF(International Business Leader Forum)	CSR은 종업원,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윤리적 가치와 중요성에 기초한 기업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활동이다. 큰 의미에서 주주들에게와 같이 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윤리적, 법적, 경제적, 시민의 기대를 부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일관성 있게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다.
Pfizer	기업시민정신이란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기업이 지역사회와 지구촌 사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위한 노력이다. 좋은 기업시민이 된다는 것은 화이자의 정책과 경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는 화이자의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나 그룹이다.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는 기업시민정신의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화이자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화이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미션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5) Dahlsrud Alexander, (2008)

6) Welford, (1996)

7) Carroll B. & Ann K. Buchholtz(2003), p.39

CSR의 주요 용어

용어	개념
Corporate Citizenship (기업시민정신)	기업시민정신은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Simon Zadek)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발전의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시키려는 경영활동이다. (지속가능발전한국위원회)
Corporate Sustainability (기업지속가능성)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PWC)
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라는 새로운 자본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우투과이라운드, 도하라운드에 이어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기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책임투자가 장기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제 자본시장은 국제 정치사회보다 사회의 변화에 먼저 반응하는데 펀드 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는 가치투자와 함께 새로운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 사회책임투자협회(ASRIA)는 2004년 미국에선 15%, 유럽에선 12%, 일본에선 0.02%가 책임투자펀드였다고 보고 있다.
기타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Ethical Accounting, CSI (Corporate Social Investment)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흐름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인식을 높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 작업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 작업은 환경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지속가능개발지표 개발에서부터 안전, 노동, 기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OECD와 최근에는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UN의 글로벌컴팩, 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책임을의 표준화 작업은 표준화의 주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화의 대상은 환경, 노동, 윤리, 사회공헌, 사회적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기업의 사회보고서 발행을 의무화 하면서 이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⁸⁾ 1999년에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 등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을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EU는 유럽국가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을 위한 그린페이퍼(Green Paper)를 2001년 발간하였다. 그린페이퍼의 주요 지표로는 기업내부 활동과 관련해서는 인적자원관리, 작업장에서의 건강안전, 환경관리 등이 있으며 기업외부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하청업체, 고객, 국제환경 등이 있다.

GRI는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에 의해 1997에 시작되었으며 2002년 독립하였다. 현재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의 공적인 공동연구 센터로서, UN의 지구협약(Global Compact)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ing)는 기관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공적으로 알리는 과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재무보고만으로는 전반적인 조직의 성과에 대한 주주들과 고객, 지역공동체, 다른 투자자들의 필요를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있으므로 Sustainability Reporting을 통해 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후생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비교가능성, 일관성, 신뢰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GRI의 가이드라인은 모든 유형, 규모, 어떠한 입지의 조직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8) OECD Guideline for MNEs,

지구협약(Global Compact)은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를 진전시킴으로써 기업 책임을 촉진시키려는 United Nations initiative이다. Global Compact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인권과 노동 기준, 환경 분야에서 10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10가지 원칙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Fundamental Principles of Rights at Work', 'Rio Principle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유래된 것이다.⁹⁾

ISO의 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의미하는 'CSR'에서 'C'를 삭제한 'SR'로 시작되었다. 2001년 9월 ISO의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의 타당성 검토가 논의된 이래 SR(Social Responsibility) 보고서가 2004년 4월 30일 발간되었으며 2005년 3월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제1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회의를 개최하여 43개국 ISO 회원국과 24개의 국제기구(ILO, UNCAD 등)에서 300여명이 참가하여 SR 표준화 제정을 위한 Working Group의 조직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매년 표준화 작업을 위한 국가간, 섹터가 국제조직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ISO에서는 2009년을 목표로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마련을 마치기 위한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으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사회적책임을 연계한 표준화 작업으로는 CR 인덱스가 있다. CR 인덱스는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가 개발한 인덱스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전략에서부터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수를 매기고 있다. 전략, 경영과의 연계, 운영(지역사회, 환경, 시장환경, 근로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CR 인덱스는 특히 사회적책임과 환경부분을 모두 잘 반영하고 있는 인덱스로서 2002년 처음 인덱스를 발표한 이래 참가 기업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다. 참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그들 순위의 공개에 동의하고 있다¹⁰⁾.

그 밖에 비영리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작업으로는 AA1000, Global Sullivan Principles, GEMI(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itiative)의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성과 등이 있어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5. 기업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경영활동, 의사결정,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들 역시 기업의 경영활동, 의사결정,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는 기업 경영활동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 중심에서 경영 중심으로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경영의 폭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제 1그룹과 제 2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그룹은 기업의 경영과 직접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주주,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관계사 들이며 제 2그룹은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미지나 사회적 위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으로 정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과 이해가 달려있는 제 1그룹에 대하여 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 본연의 목적 실현과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제 2그룹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기업들이 이들 제 2그룹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투명성과 신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GRI 등 모든 표준화 작업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다.

9) <http://www.unglobalcompact.org>

10) <http://www.bitc.org.uk>


6.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작업은 환경문제와 같이 기업들의 무역거래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표준화 작업은 제3자 인증이 아닌 자발적인 가입과 보고의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 당장 표준화 작업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시민사회, 고객, 언론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과거 기업이 관행대로 행해온 분식회계, 비합리적 지배구조, 분식회계, 인권유린, 환경훼손과 같은 관행은 비록 법적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외국의 기업에 비해 많은 사회공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¹¹⁾ 이에 못지않은 사회적책임의 수행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NGO나 외부의 환경, 윤리, 지배구조, 인권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압력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기 보다는 기업이 현대사회의 변화된 환경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7. 미치는 글

2006년 1월 27일 이노베스트사에서는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에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06년 글로벌 100 지속가능 기업 명단을 발표하였다.¹²⁾ 100대 기업에는 영국 기업이 30개, 미국 기업이 17개 그리고 일본 기업이 10개 포함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확산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이행은 고객과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내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이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마지못해 낸 것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공헌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배구조, 노사관계, 인권, 환경, 사회공헌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들을 이행할 때야 비로소 사회적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현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업의 성장은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업은 지난 수십년 사이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와 기업들도 탄생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한국기업이 늦게나마 사회적책임의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스스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환경, 인권, 노동, 윤리, 지역사회 등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들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에게 부담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과 사회가 파괴되고 인권이 상실되면 기업의 경쟁력도 손상 받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은 이제 기업과 사회와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경영진, 주주의 주장 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협력사, NGO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기업과 유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사회와 분리되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 없다.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1) 전경련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경상이익대비 2%선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기업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지출이다.

12) www.innovestgroup.com

참고자료2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사역

손병덕 교수(총신대 사회복지학과)

* 본 글은 기윤실 주최로 2008년 10월 6일, 장신대에서 진행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입니다.

지역사회 거주민의 상당 수는 사회 복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적 도움은신체적, 정신적(심리/정서적)장애, 질병 혹은 스스로의 문제행동, 경제적/가정적 위기현상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 장년, 노년들은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활동의 주 대상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들로 대표될 수 있는 빈곤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재가보호 대상자, 실업자, 보육대상아동,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호자에 가까운 빈곤층)들까지 포함되어 그 대상 폭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나 전문적 사역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4인 가족 기준 월 수입 126만원 이하인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 달하는 추정 장애인
- 노령인구: 전 국민의 약15%에 해당하는 625만 명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분들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그룹 홈 보호 아동, 학대·방임아동
- 위기·비행 청소년 및 피해청소년
- 가정폭력 피해자
- 노숙인
- 실업자: 15세 이상 6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이들의 사회 복지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각급 지역사회 복지관들이 행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될 수 있다.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지역 사회 보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사업 -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서비스 (식사배달, 일반 찬배달, 무료급식 등)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 운영
가족 복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진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 가족기능 보완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 부양가족지원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및 가정 문제 등 상담 -방과 후 이동보호 프로그램
지역 사회 조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주민복지 증진 :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자원봉사자 양성 :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사업 - 후원자 개발·조직 :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복지네트워크 구축
교육·문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사업 - 성인 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 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 노인 여가문화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문화복지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자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능 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직업능력 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자활공동체 육성 :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부업 안내 및 알선 -취업·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이처럼 사회복지지는 이상에 거론된 사회복지실천대상의 사회복지적 문제들을 해소·해결하고자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을 아우르고, 미시적으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집단의 구체적인 사회 복지적 필요를 채우는데 목표를 둔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지는 거듭남을 경험한 신앙인들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구현하려 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독교 지향적 사회복지 활동들은 거시적 사회복지 정책입안과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현장에서 기독교인의 참여를 통해 구현될 수 있고, 미시적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 2005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보건복지부, p 6.
 2) 손병덕(2005). 기독교사회복지. 서울:예장출판사.

역사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의 시작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민법의 제정과 반포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한국사회복지의 근간도 역시 기독교의 전래와 그 맥을 같이 하였고, 또한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교회와 그 신앙인들의 값진 헌신이 중추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 실천은 깊은 연관이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한국기독교 선교초기에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정동제일병원을 위시한 30여개의 병원과 연회, 이화, 경신 등 학교설립³⁾을 통한 간접 선교의 기독교 사회복지적 자리 매김은 중대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사회복지운영의 민간주체운영이 시작된 1980년대 까지 민간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주도역인 역할을 해왔다. 박종삼 등(2003)은 1986년에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초로 사회복지 기관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독교의 사회복지 기여도가 중차대하였음을 지적 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까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일반에게 그간 보여 온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노력들도 교회의 직접전도와 선교적 활동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손병덕⁴⁾의 연구는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과 성장과의 개연성을 통계적 자료와 분석을 통하여 증명해 보였는데, 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교회의 양적 혹은 질적 성장과 교회가 행하는 각종 사회봉사적 활동들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지지자원들을 확보할 때 교회의 긍정적 인지도가 상승되고 따라서 교회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살려고 할 때, 소외되거나 위기에 놓인 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사회봉사적 활동들을 베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교회의 그러한 노력들은 성도들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게 되고 결국 교회구성원들 전반의 인식고양이 도출되어 성숙한 교회이며, 지역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면서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형으로 변모되어 민간 법단체의 운영권 수탁이 시작된 이래, 이 부분에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실례로 박종삼 등(2003)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1993년에 예방통합은 조사대상 2,008개 교회 중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여한 교회는 단 4개소에 불과했고, 1997년 조사에 따르면 감리회도 당시 전체 4,483개 교회 중 복지관 운영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양로원만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교회들은 선교원, 유치원, 장학사업/장학관, 무료식당 운영 등의 개교회 중심의 사회복지적 활동들에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것이 드러나지만 한국 사회복지계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처에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복음전파와 함께 동시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인의 실천적 사명의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이웃을 돕는 일 즉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필요를 채우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 시설, 그리고 지자체를 중심⁵⁾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하에 전개되는 전문사회복지 실천에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1995년 이래 10년간 종교인구의 증감과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사회복지실천 투여여부를 함께 고려할 때 지역에 따라 심각한 기독교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곳들이 흥미롭게도 사회복지시설 위탁주체⁶⁾의 증감과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서울특별시의 기독교 인구는 2,675,580명 이었던 것에 비해 2005년엔 20.4%나 감소한 2,222,831명⁷⁾으로 조사된다.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의 총인구가 단 4.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의 기독교 인구 감소로 이

3) 박종삼외(2003).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4) 손병덕(2003). 교회성장 요인으로서의 서울 경기지역 개교회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연구, 總神大論叢 제22집, 245-268.

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시행일 : '05.7.31)항에 따라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에 따라 ①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②개선필요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의하고 공공-민간간, 사회복지-보건의로 등 복지관련 기관,단체간 연계,협력의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지역사회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동 법에 따라 2006년도부터 새로 수립된 사회복지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0년경에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6)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일반법인이 주체가 된)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만약 교회나 사찰도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잘해 온 증빙이 갖추어지면 개별교회나 사찰도 위탁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사랑의교회 사랑의복지재단은 사랑의복지관과 반포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새문안교회복지재단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7) 통계청. (1999). 1999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중 '종교인구' 부분 조사.

해된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천주교 인구는 66%가 증가하였고, 불교는 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독교법인 위탁 사회복지시설위탁수준이 전체적으로 25.1% 증가에 그친 반면,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33.3%, 226% 증가⁸⁾한 사실, 그리고 기독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천주교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불교가 거의 추적해온 양상⁹⁾을 고려하면 기독교 인구의 감소가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가 기독교인구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사회인식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15세~29세 기독교 젊은층 인구의 경우 1995년 822,503명이던 것이 2005년 559,902명으로 오히려 4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이런 유추에 증거를 제공한다. 즉, 서울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위탁등 봉사참여 수준이 전체사회복지시설 증설의 일반적 증가와 비슷하여 기독교계가 사회봉사 참여수준이 저조한 것이 젊은층의 종교선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기독교 청년인 선교에 부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울거주 천주교 젊은 층의 대폭 증가(70.6%)와 불교전체인구의 서울시감소폭(61%) 대비 젊은 층의 소폭 감소(42.8%)는 이들 종교계가 사회사회의 필요를 채우려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한 결과, 천주교 젊은층의 대폭 증가와 불교 젊은층의 서울지역 감소율을 상당히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복지계는 1990년대 말부터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지표를 개발 200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이 기관의 목적에 준하는 사업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하는 등 조직, 인사, 프로그램관리, 재정 관리 등 체계적인 제도적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자발적인 증대의 결과 기관과 시설 간 경쟁체제가 구축되어가고 기타 시민단체와도 제한된 규모의 사회적 지지자원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방자치체는 1949년 7월에 이미 제정·공포 되었으나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가 광역시도별로 구성, 운영되면서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시작 하였는데, 지자체의 근간은 지역주민 자신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사랑하고 살기 좋도록 만들고 누리는데 있다. 즉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로서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행정과 복지실천에 참여하는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실천에 있어서도 단순히 시혜적으로 지역주민들 중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가난하고 소외되었을 지라도 자신의 복지욕구를 충족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교회는 바야흐로 '권리'를 주장하는 지방자치체가 실현되는 지역사회에 존재함으로써, 이제는 당장 배부르게 먹는 문제를 떠나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느냐,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느냐가 중요한 실천덕목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이웃을 돕는 데에도 단순 시혜성, 단회적인 사업과 활동에 머무른다면 시대적인 시민의식의 성장과, 지역사회 복지의 근간인 권리적 복지실현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는커녕 복음을 정당하게 증거 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복지적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응과 실천을 전문적인 수준으로 해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재정자립을 근간으로 하는 지자체의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실현을 위한 재정사용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지역의 복지문제 해소는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교회가 이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부족현황을 함께 파악하여 부족한 복지시설 증설 및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한다면 지자체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동시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부분들을 지자체와 협

8) 2005년 전국종합사회복지관현황, 2003년 전국종합사회복지관현황, 보건복지부; 2006년 아동복지시설일람표, 2001년 아동복지시설일람표, 보건복지부;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3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http://www.mahayana.or.kr>;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http://jgo.or.kr> 원불교 사회복지지원정보센터 <http://www.wonfare.or.k> 등 전체 자료를 토대로 하되 파악되지 않는 기관들은 해당 복지관에 전화 연락하여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 통계를 낸 것. 전통적 불교가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격오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발달에 따른 종교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로부터 환영 받지 않는 종교가 쇠퇴 할 것이라는 사실을 1990년대 들어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들을 세우거나 위탁 운영하는데 매우 열의를 보인 결과 불교는 지역사회에서 그 기반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9) 부산일보(2007.08.02)에 따르면 1순위에서 6순위까지 시민단체에 대한 종교별 영향력 순위점수(6점 만점)은 천주교 5.83, 불교 4.41, 개신교 4.94 순으로 개신교의 역할이 천주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력하여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에 위치하는 교회가 지역의 부분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교회와 지자체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증대는 자연스런 귀결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웃사랑의 실천적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되, 현대 지역사회복지체계의 흐름과 필요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전문적 실천을 통해 효과적으로 호응하고 나아가 지역을 섬기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마땅히 할 일도 하고, 복음전파도 도모하는' 자연스런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하여 ①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반 취약상황과 지역의 사회복지적 욕구를 고려하되, ②지자체의 복지계획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계획과 중복을 피하고 ③지자체 혹은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시도일 것이다. 이때 지역의 기독교인구 중 (일반, 젊은층, 노령층으로 구분한) 감소 혹은 정체 상황의 정도를 파악하여 선교적 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타겟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도 전략적 배려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필요들을 채우려고 할 때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단순 시혜성 봉사도 계속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향하여 전문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다음으로 교회 밖 사정을 교회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교회의 봉사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교회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채우려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지역 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교회 위치를 공고히 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회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지역 내 교회기반을 튼튼히 하며, 결국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해 낼 것이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손병덕 교수가 목회와신학에 기고한 글 목록

- 2008년 7월 “교회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관계
- 2008년 8월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 2008년 9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경기도”
- 2008년 10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충청도”
- 2008년 11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전라도”
- 2009년 1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경상도”
- 2009년 2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강원도”
- 2009년 3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제주도”

* 이 중 샘플로 2008년 9월 경기도편을 손병덕 교수와 목회와신학의 허가를 받아 복사하여 별도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자료3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사회적 섬김 Mapping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사회적 섬김 Mapping’ 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를 묶은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그룹을 파악하고 또 지역사회의 필요(사회, 문화적 욕구)들을 분석하고, 또 이러한 필요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지 교회내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섬김사역을 기획, 진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목회자분들께 사전 제공해 드렸던 워크시트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정보수집)와 교회구성원, 예산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기초 작성해 보시고 컨퍼런스기간 동안 다양한 강의와 사역나눔을 통해 완성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목회하시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도구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사회적 섬김 Mapping I

‘지역사회는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 지역사회 분석**
- 인구분포
 - 경제활동 인구
 - 주거상황 (아파트, 단독, 주상복합, 다세대지구)
 - 지역환경 (공공시설/ 생태공간/ 문화시설/ 복지시설)
 - 지역특수성 (재개발지역 등)

■ 우리 교회 ■

<비전> <예산분서>	
인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집중적 섬김 대상/이슈 선정>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그룹은 누구일까?
어떻게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인가?

- 사회적 약자그룹 파악**
- 저소득층 수(연령별 분포)
 - 새터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수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역사회가 필요(욕구)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 지역사회 (총체적) 필요!**
- 경제적 어려움
 - 문화적 소외
 - 관계망, 공동체성 결여 (정서적 지원)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사회적 섬김 Mapping II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섬김을 위한 실천적 지혜 모으기!

통일

■ 우리 교회 ■

<비전> 비전에 부합되는가? <예산>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인적 인프라 - 성도군의 관습사 - 성향파악 -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인맥)	물리적 인프라 - 교회공간 공유 - 교회운영기관 활용 - 지역 내 교회외치 (정교도)
<집중적 섬김 대상/이슈 선정>	

교육봉사

자원봉사

복지(구호)

환경

문화

지역사회복지

대안경제

참고자료4

사회적 책임 관련 도서목록

사회적책임 관련 도서목록을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교회의 사회적책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서는 적지만,
다양한 영역의 도서를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론적인 도서보다는 실용도서들을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도서목록 정리에는 워크숍 강사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목록 중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도서의 경우
컨퍼런스 둘째날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추 천	21세기 문화와 문화선교	정원범	한들출판사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무하마드 유누스	물푸레
	공공신학	기윤실	예영커뮤니케이션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윤실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문화 소통과 변혁을 위하여	문화선교연구원	예영커뮤니케이션
	기독교와 사회문제	아브라함 카이퍼	생명의말씀사
	기독교 시민의 사회적책임	윌리엄 템플	인간과 복지
	기업은 왜 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데이비드 보겔	거름
	나눔	프랑수아즈 바레 뒤크로	솔출판사
	남북한 교회 통일 콘서트	김병로	기북선
	녹색시민 보씨의 하루	앨런 테인 더닝, 존 라이언	그물코
	녹색의 눈으로 보는 성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기독교서회
	도시 속 희망공동체 11곳	시민의 신문	시금치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 습관 77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추수밭(청림출판)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황주석	그물코
	무지개 가게	사회연대은행	갤리온
	보노보 혁명	유병선	부키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추천	사회선교 한걸음	성서한국	뉴스앤조이
	사회적 하나님	케네스 리치	청림출판
	사회책임투자 세계적 혁명	러셀 스팍스	홍성사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전병길	꿈꾸는터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	이의용	시대의창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실뱅다르니, 마투르루	마고북스
	세상을 바꾸는 돈의 사용법	야모모토 료이치	미래의 창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조성돈, 정재영	예영커뮤니케이션
	열혈교사 도전기	웬디 콕	에이지21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마일즈 리트비노프	모티브북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신동식	예영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호소우치 노부타카	아르케
	피스메이커=Peace maker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임동원	중앙북스
	행정 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이준범	이매진
	희망을 여행하라 : 공정여행 가이드북	이매진피스, 임영신	소나무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이종석	역사비평사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로날드 사이더	IVP
	가난한 휴머니즘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이후
	그리스도와 문화	리처드 니버	IVP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짐월리스	살림
	꿈의 도시 구리찌바	박용남	녹생평론사
	내 딸아, 나눔은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란다	오정은	글고은
	다같이 돌아 골목 미술관	황정주	이매진
	두개의 한국 : 북한과 남조선	돈 오버도퍼	길산
	리빙그린	그레그 혼	사이언스북스
	변산 공동체학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윤구병, 김미선	보리
	법씨야, 학교가자	강옥희	이매진
	불편한 진실	엘 고어	좋은생각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정의	찰스 콜슨	IVP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전우택	오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이창희	창지사
	산동네 공부방, 그 사소하고 조용한 기적	최수연	책으로여는세상
	세 바뀌로 달리는 희망 자전거	김정희	이매진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중앙북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요구르트의 슬픈 비밀을 아시나요?	강태호	예지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박세길	시대의창
	이런 사람 만나봤어?	한재량	이매진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에코리브르
	하나님 나라의 향연	차정식	새물결플러스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박명림	나남출판
	행복한 기부	토마스 람게	풀빛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트	IVP	
Giving	빌 클린턴	물푸레	
나쁜 그리스도인	데이비드 키드먼	살림	
통일 그 이후	주도홍	IVP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백종국	IVP	
회심	짐 월리스	IVP	
희망을 키우는 착한소비	프랑스 판 데어 호프	서해문집	
희망의 인문학	얼 쇼리스	이매진	

참고자료5

교회의 사회적책임 활동 사례 목록

본 사례 목록은 예장 합동측 신문인 <기독신문>과 예장 통합측 신문인 <한국기독교공보>, 그리고 기감측 신문인 <기독교타임즈>에 기사화된 교회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 신문 : 기독신문, 한국기독교공보, 기독교타임즈
2. 조사대상 기간 : 2007년 1월~2009년 9월까지 발행된 신문
3. 조사방법 : 신문에 소개된 교회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
(총 450여건의 교회사례 정리)
4. 조사기준 : 일반적인 교회홍보 기사나 전도, 선교와 관련된 교회기사는 제외하고
사회적인 활동과 연관된 기사만 인용

본 자료는 완성된 공식자료가 아니며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추후 공표될 예정입니다.
450여건의 사례 중 일부 사례를 정리하여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목회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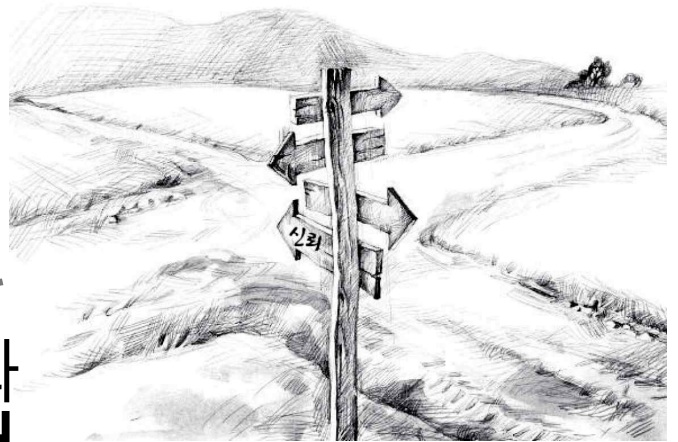
조사과정에서 교회 또는 목회자 성함에 오타가 발생했거나,
2007년 1월 신문부터 조사한 것이기에
현재 교회 담임목회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	교회명	목회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연월일
교육	열방교회	김국명	"문턱 낮추기로 교회성장 이끈다"	기독교신문	2008.11.26
교육	마랑중앙교회		"우리 교회는 희망 발전소다"	기독교신문	2009.1.14
교육	세계인교회	김영철	"건강한 비전에 투자한다"	기독교신문	2007.10.24
교육	부산중앙교회	최현범	"교회 사회적 책임 해답 찾아간다"	기독교신문	2009.4.29
교육	서울우림교회	김대영	"세계 영적리더 키운다"	기독교신문	2009.3.18
교육	익산성락교회	박윤성	결식아동 겨울방학학교 익산성락교회 "힘내세요"	기독교신문	2009.3.4
교육	광주중앙교회	석찬영	광주중앙교회 홈스쿨 열어	기독교신문	2007.10.17
교육	비전사랑의교회	이충희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2009.2.11
교육	열방을섬기는교회	신준식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2009.2.11
교육	서대문교회	장봉생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2009.2.11
교육	목민학사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2009.2.11
교육	경성교회	박종걸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2009.2.11
교육	동인교회	송태훈	기독교 인재양성 원대한 꿈 '첫걸음'	기독교신문	2009.1.21
교육	정읍내장교회	오현두	'다니엘 공부방'에 희망 싹튼다	기독교신문	2008.1.23
교육	샘물중학교	박은조	대안학교 '샘물중' 개교	기독교신문	2009.2.25
교육	대전좋은교회	양복석	"연속기획/건강한교회기회망이다" 아동복지사역 천천히분명하게	기독교신문	2007.1.31
교육	실로암아이센터	유익웅	"사마리아 사람 같은 동역자 되자"	기독교공보	2008.3.22
교육	성남지역아동센터	강은숙	그 아동센터가 18년간 사랑받은 이유	기독교공보	2008.6.28
교육	삼양교회		꿈 키워주는 학교 되어야	기독교공보	2008.3.15
교육	새롬교회	이원돈	우리마을 사람들은 이사가기 싫어해요	기독교공보	2007.6.23
교육	염산교회	김종익	지역과 함께 한 60년, 하늘나라 소망과 비전 제시한다	기독교공보	2008.3.15
교육	창천교회	서호석	'놀토' 교회를 활용해 보자!	기독교 타임즈	2007.5.19
교육	춘천 효자 교회	김종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되고파"	기독교 타임즈	2008.8.2
교육	새홍성 교회	유인열	다문화 가정이 농촌교회의 희망	기독교 타임즈	2008.1.26
교육	창녕 교회	김근중	보릿고개도 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기독교 타임즈	2008.4.5
교육	빛과진리의교회(부산)	석준복	영도를 밝히는 등대, 빛과 진리의 교회 석준복 목사	기독교 타임즈	2007.8.18
교육	밀알 교회	박기서	'원미동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	기독교 타임즈	2008.7.5
대안경제	옥방교회, 새누리공동체	천정명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공화에 화답을"	기독교공보	2009.2.14
대안경제	생명을여는사람들	정봉덕	"작은 나눔이 생명을 구합니다"	기독교공보	2008.3.29
대안경제	여수중앙교회	이호윤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며 '아름다운 헌신' 실천	기독교공보	2008.1.19
대안경제	한국목회자복지조합	임인수	목회자 '마이크로 크레디트'운동 확산	기독교공보	2008.1.26
대안경제	생명의길을걷는사람들	황해주	소액대출 '확산주력'	기독교공보	2008.2.23
대안경제	천사사랑은행	인승남	아름다운/ 소액 대출 통해 서민 회생 돕는 천사사랑은행	기독교공보	2007.4.7
대안경제	덕수교회	손인웅	지역종교단체 연합바자회	기독교공보	2008.11.1
문화	산정현교회		"옥중 주기철 목사 만나다"	기독교신문	2007.8.22
문화	장수대성교회	현상국	"우리 교회는 희망 발전소다"	기독교신문	2009.1.14
문화	늘빛교회	강정훈	"지역주민 사랑이 대단"	기독교신문	2007.2.28
문화	전주예담교회	조재선	[전주예담교회 가을음악회] "주민과 더불어 즐긴다"	기독교신문	2007.10.24
문화	완주대덕교회	박순진	"농촌 어린이에 꿈을"	기독교신문	2007.8.15
문화	정운교회		10년 문화사역, 신앙생활 활력소	기독교신문	2007.12.26
문화	고서교회	오명현	고서교회 청소년 악단 연주회	기독교신문	2009.9.2
문화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문화대학 "좋아요"	기독교신문	2009.3.18
문화	대성교회	김흥근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의 선율	기독교신문	2008.6.4
문화	평안교회	이희운	사랑의 수화 마음을 열다	기독교신문	2008.12.10
문화	광양중동교회	김성환	세가지 목회테마 '행복' 나눈다	기독교신문	2007.10.3

주제	교회명	목회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연월일
문화	은샘교회	조승호	은샘교회 사역팀 강화 건강한 지역문화 유도	기독교신문	2007.8.8
문화	익산 인성교회	이명동	"감동적 선율로 공감대 형성:	기독교공보	2009.9.19
문화	대명교회	고범주	"여기는 행복의 샘터, 평안의 쉼터"	기독교공보	2007.4.28
문화	삼청감리교회	문희수	담 헐고 이웃과 소통해온 1백돌 교회 "맘씨도 좋네~"	기독교공보	2009.4.25
문화	광양대광교회	신정	예수의 향기를 널리	기독교공보	2007.4.28
문화	영락교회	이천신	지친 직장인들의 영혼의 쉼터 역할	기독교공보	2009.9.5
문화	학익 교회	조중기	[향기로운사람들] 학익교회	기독교 타임즈	2009.7.25
문화	대림 교회	임준택	"교회가 우리 동네 사랑방이죠"	기독교 타임즈	2007.10.13
문화	홍성제일교회	김대경	"교회에서 해다주는 음식이 제일 맛나유~"	기독교 타임즈	2009.5.16
문화	하늘샘 교회(천안)	이성수	"교회의 벽 허물어 세상과 소통합니다"	기독교 타임즈	2009.9.26
문화	샘터 교회(부산)	안중덕	"책 속에 풍덩~ 더위가 싸악"	기독교 타임즈	2009.8.22
문화	대소원 교회(충주)	황대성	'문화' 코드로 지역 문화 중심에 선 대소원교회	기독교 타임즈	2007.2.10
문화	만나 교회(분당)	김병삼	선교적 힌트 무한한 'CCO'	기독교 타임즈	2007.3.3
문화	한사랑 교회	임영훈	세상 향한 한사랑교회의 '러브콜'	기독교 타임즈	2007.9.8
사회복지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	[연속기획 / 건강한 교회가 희망이다] '섬김의 저력' 교회 곳곳서 열매로 화답	기독교신문	2009.4.1
사회복지	오류교회	김은호	[연속기획 / 건강한 교회가 희망이다] 본질 잊지 않는 '문화예배'로 성장 견인	기독교신문	2009.3.4
사회복지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니눔사역은 계속됩니다"	기독교신문	2008.5.7
사회복지	예송전원교회	박정석	"마르지 않는 숲속의 웅달샘에 오세요"	기독교신문	2009.3.25
사회복지	광야교회	임명희	광야교회, 노숙인복지센터 마련	기독교신문	2007.7.4
사회복지	광주월산교회	장성진	광주월산교회 천사도우미 떴다	기독교신문	2009.4.29
사회복지	구미제일	함종수	구미제일교회 외국인사역 상받다	기독교신문	2009.6.3
사회복지	장대현교회(부산)		새터민 교회 세웠다	기독교신문	2007.7.11
사회복지	오류교회	김은호	오류교회 '다니엘세이레기도회'	기독교신문	2008.12.8
사회복지	화순온누리교회	김현용	외국인이주가족사랑으로품는다	기독교신문	2008.9.24
사회복지	삼호읍교회	김수일	외국인노동자의 든든한 벗 삼호읍교회 문화사역 호응	기독교신문	2009.8.19
사회복지	대구대동교회	이동관	차세대 영적리더 조기교육 대동교회 아카데미 '인기짱'	기독교신문	2009.4.29
사회복지	안동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푸른초장교회 '기적 성전'	기독교신문	2009.1.14
사회복지	도계교회	김영환	[우리교회]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의 중심 리더	기독교공보	2007.4.7
사회복지	동지교회(대구)	신경희	"그래도 너무 행복한 제주도 나들이였어요~"	기독교공보	2009.6.27
사회복지	신곡교회	최해협	"아픈 마음까지 느껴져요"	기독교공보	2008.6.21
사회복지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주민들이 교회를 '이웃사촌'이래요"	기독교공보	2008.3.29
사회복지	갈전교회	신광열	갈전리 어르신들, 저희가 정성껏 섬길게요	기독교공보	2007.2.10
사회복지	지산제일교회	신정환	대추차 향 진한 '하늘땀은집'으로 오이소	기독교공보	2008.1.26
사회복지	염광교회	전두호	복지 사업 통해 교회·학교 하나되다	기독교공보	2007.3.24
사회복지	상당교회사랑학교	정삼수	사랑학교 다니게 하려고 사업체도 옮겼어요	기독교공보	2008.6.21
사회복지	안산기독교상담센터	안명숙	위기의 사람들, 교회가 돕는다	기독교공보	2008.4.5
사회복지	빛과소금교회	최상경	의술로 지역사회 섬긴다	기독교공보	2008.1.26
사회복지	대구남산교회	김태영	장애, 비장애 벽 허물고 만든 '가족 공동체'	기독교공보	2008.5.3
사회복지	동부제일교회	임은범	장애인 섬김 위해 스스로 팔 걸었다	기독교공보	2008.8.9
사회복지	창동염광교회	최기석	장애인들 성장 맞춘 연령별 예배로 특화	기독교공보	2008.6.28
사회복지	전주예수병원	김민철	전주예수병원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개시	기독교공보	2007.1.27
사회복지	대구 동지교회	신경희	주차장에 늘 휠체어 대기...엘리베이터 타고 곧장 예배당으로	기독교공보	2008.4.12
사회복지	국수교회	김일현	특성화로 지역 섬긴다	기독교공보	2008.5.17
사회복지	부광 교회	김상현	"교회와 이웃 함께 돕는 다문화 가정"	기독교 타임즈	2008.7.12
사회복지	세신 교회	김종수	"땀으로 섬겨 진하게 맞본 기쁨"	기독교 타임즈	2007.4.28

주제	교회명	목회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연월일
사회복지	해성 교회	한정석	"크리스찬의 삶이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기독교 타임즈	2007.6.19
사회복지	은강교회	박용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타임즈	2008.4.12
사회복지	횡성 교회	양명환	"교회 가는 날이 가장 즐거워요"	기독교 타임즈	2009.7.4
사회복지	한사랑 교회	임영훈	"놀이 속에 믿음 싹싹"	기독교 타임즈	2008.7.19
사회복지	부천 제일 교회	이민재	"복지관은 보이지 않는 교회"	기독교 타임즈	2009.3.7
사회복지	연수동 지방회	배익환	"어린이날을 지역 축제로 만들자"	기독교 타임즈	2008.4.12
사회복지	괴산 중앙 교회	홍일기	"영혼을 살찌우는 사랑의 반찬"	기독교 타임즈	2008.12.20
사회복지	성민교회	차창규	"일방적 소통 NO! 함께 하는 소통 YES!"	기독교 타임즈	2009.5.23
사회복지	평지 교회	오범석	노숙인 '해피홈' 30호 준비 '끝'	기독교 타임즈	2007.11.24
사회복지	등불 교회	장병용	등불교회, 에이블 아트센터 건립 위한 음악회	기독교 타임즈	2008.3.22
사회복지	부평 교회	홍은파	세계교회에 한류(韓流) 열풍 일으킨 부평지킴이	기독교 타임즈	2009.1.24
사회복지	수표교 교회	김고광	수표교, 지방 수험생에게 '따뜻한 사랑'	기독교 타임즈	2007.1.20
사회복지	수표교 교회	김고광	지나온 100년의 감사, 새로운 100년의 꿈	기독교 타임즈	2009.9.12
사회복지	영천 교회	이재덕	지애엄매 우리 이제 교회 같이 가요"	기독교 타임즈	2008.11.15
자원봉사	전주열린문교회	이광우	"평생 기억할 보람 얻었어요"	기독교신문	2007.8.8
자원봉사	원당교회	유선모	원당교회 긴급구호봉사단 전천후 활동 "사랑 전한다"	기독교신문	2009.4.15
자원봉사	사랑의 한국교회봉사단	오정현	한국교회봉사단 '러브하우스' 구슬땀	기독교신문	2009.8.12
자원봉사	안양제일교회		축복의 그물로 섬마를 건져 올린다	기독교공보	2007.8.18
자원봉사	새롬교회(해남)	이호균	'거미줄식 복지지역' 펼쳐는 '새롬사회봉사단'	기독교 타임즈	2007.6.19
통일	계산교회	김태일	계산교회 '새터민 사역' 활기	기독교신문	2009.3.4
환경	순천대대교회	공학섭	"우리 교회는 희망 발전소다"	기독교신문	2009.1.14
환경	광동교회		[연속기획/녹색교회 만들기 프로젝트③] 전기	기독교신문	2009.7.1
환경	신양교회	차정규	[연속기획/녹색교회 만들기 프로젝트④] 녹색교회 탐방(1)	기독교신문	2009.7.8
환경	순천대대교회		[우리교회 좋은교회] 신앙 싹싹 키우는 생태프로그램	기독교신문	2008.9.24
환경	홍천동면교회	박순웅	"건강한 맘의 힘을 믿는다"	기독교신문	2008.5.14
환경	제주이도교회	김성욱	"건강한 재충전으로 복음화를"	기독교신문	2008.2.13
환경	청파교회	김기석	고유가 시대, 교회가 에너지 절약 앞장	기독교신문	2008.6.18
환경	내동교회	김종욱	고유가 시대, 교회가 에너지 절약 앞장	기독교신문	2008.6.18
환경	지평교회	이택규	고유가 시대, 교회가 에너지 절약 앞장	기독교신문	2008.6.18
환경	평화의교회	박경양	교회 곳곳이 생태운동 체험장	기독교신문	2009.7.15
환경	용인제일	변우상	용인제일, 도농 자매결연	기독교신문	2008.8.13
환경	갈릴리교회	인망진	"창조질서 파괴 우리가 주범"	기독교공보	2009.6.20
환경	환경보호기정착협	이상기	"환경 지킴이, 교회가 먼저"	기독교공보	2009.5.2
환경	빈들교회	김규복	노동 주민 생명에 앞장	기독교공보	2007.7.28
환경	포항 푸른마을교회	이상은	새,바람,웃음,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리는 교회	기독교공보	2008.4.5
환경	광동교회	방영철	아름다운세상/ "교회 마당, 자연과 사람의 인식 처"	기독교공보	2007.4.14
환경	덕수교회	손인웅	아름다운세상/ "교회마당, 자연과사람의인식처"	기독교공보	2007.4.14
환경	내동교회	김종욱	아름다운세상/ "교회마당, 자연과사람의인식처"	기독교공보	2007.4.14
환경	석포교회	이상현	아름다운세상/ "교회마당, 자연과사람의인식처"	기독교공보	2007.4.14
환경	장애인교회 세상을 밝힌다		장애인교회 세상을 밝힌다	기독교공보	2008.4.19
환경	함양 제일 교회	김성률	"생명을 돌보는 일이 바로 환경목회"	기독교 타임즈	2008.3.29
환경	송악 교회(아산)	이종명	"녹색교회가 있어 마을이 푸르다."	기독교 타임즈	2009.4.18
환경	어유 교회	이상백	닭장에 들어갈 땐 "노크하세요"	기독교 타임즈	2008.1.12
환경	홍천동면교회	박순웅	친환경 농사지어 생태기행 경비 보태	기독교 타임즈	2007.10.6
환경	백석 교회(일산)	신석현	하나님 세상 지키는 '초록교회'	기독교 타임즈	2008.5.24
환경	청파 감리 교회	김거석	햇빛발전소'를 아십니까?	기독교 타임즈	20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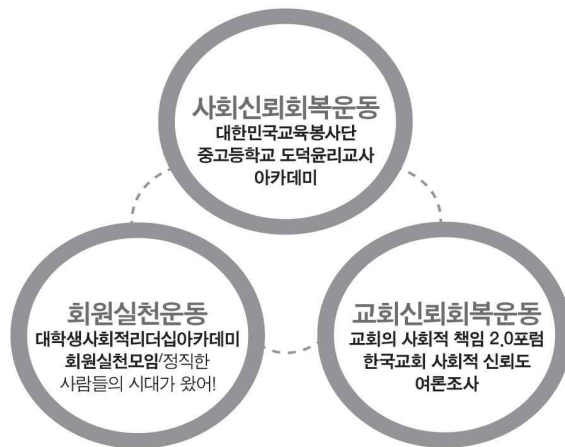
www.trusti.kr
 기윤실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TRUST INITIATIVE)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신뢰회복운동>, <교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 2009'기윤실운동의3영역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김동호(높은뜻교회연합 대표목사),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외문화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운동본부장 :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욱(숭실대 철학과 교수),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김은혜(숭실대 교양학부 교수), 조성돈(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황영익(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 양세진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뢰받는 교회 & 사회” 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Recycled Paper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양코르지, 중질만화지)로 만들었습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